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8. 28(수),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현, 박양우, 백인성, 양경모, 이광춘,  
이두표, 이상필, 이은희, 이홍식, 이재근, 정종수

# 목 차

## 【심의·검토사항】

1	「사항노루」 체세포 복제에 필요한 샘플 채취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조정 검토	공개
3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탐방로 정비	공개
4	「산골뚝나비」의 종 및 서식지 보전·복원 연구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공개
6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선착장 조성 등	공개
7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8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 조성	공개
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1)	공개
10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2)	공개
1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108법당 신축	공개
12	「고양 송포 백송」 주변 소매점 신축	공개
13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본 수준점 설치	공개
14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조형 표지석 설치	공개
15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관광농원 신축	공개
16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공장 신축	공개
17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공개
1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해송림 종합관리 시범사업	공개
19	「제주 수산동굴」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공개
20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주민 공동작업 시설 신축	공개
21	「공주 고마나루」 내 보행자 전용 육교 설치	공개
22	「공주 고마나루」 내 단독주택 증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공개
23	「예천 선몽대 일원」 주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개
24	「태백 검룡소」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공개
25	「부여 구드레 일원」 내 선착장 탐방객 편의시설 간이화장실 이축	공개
26	「광주 환벽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공개

## 【보고사항】

2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	----

## 1. 「사향노루」 체세포 복제에 필요한 샘플 채취

### 가. 제안사항

사향노루의 복원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사향노루를 포획하여 혈액 및 체세포 채취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내에 서식하는 사향노루와 몽골·러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사향노루 간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통해 국내 사향노루의 복원 및 관리 방안 마련하고자 사향노루를 포획하여 혈액 및 체세포 채취를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2010년 11차, 2011년 1차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재신청한 사안임.

① 1 )

• :

• :

① 1 )

• : , 2

• :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장수군수(환경위생과)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16호 사향노루
  - 소재지 : 전국일원
  - 지정일 : 1968. 11. 2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사향노루의 질병 및 유전적 다양성 연구
- 사업위치 : 강원도 화천·양구 일원
- 사업내용
  - ▶ 사향노루의 외부 형태적 특성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 국내에 서식하는 사향노루와 몽골·러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사향노루 간 외부형태적 특성 비교
    - 국내에 서식하는 사향노루와 몽골·러시아 지역에 서식하는 사향노루 간 유전적 다양성 비교
  - ▶ 사향노루의 질병 연구
    - 국내외 사향노루의 외부기생충 현황과 치료 방안 마련
    - 구제역과 같은 법정전염병 예방 대책 마련 및 우제류 관련 각종 질병 검사
    - 사슴 결핵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등
  - ▶ 사향노루의 체세포 복제 기술 확립 및 증식 개발
    - 귀 조직 채취 후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개체수 증진 방안 마련
- 포획방법
  - 사향노루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포획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며, 포획방법과 각 종의 생태적 특성 또는 각 개체의 영양 상태 등에 따라 포획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임
  - 또한 포획방법과 포획되어 있는 시간 및 포획동물의 관리 방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본 연구진은 사향노루의 포획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슴과 동물의 포획에 안전성이 입증된 clover tarp과 drop net을 접목한 collapsible trap과 안전울무를 제작해 사향노루 포획에 사용할 계획이며,
  - 각각의 포획 장비는 언제 어디서나 포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포 확인 장치를 부착하여 사향노루가 포획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포획된 동물의 핸들링 및 현지내 안전한 채취 장소로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함
  - 특히, 포획된 동물의 핸들링은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 수의팀 및 포유류전문가들이 함께 수행하여 포획에 따른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포획후 채취 등
    - 사향노루를 포획하여 체세포 채취 장비를 이용 귀에서 약 0.5cm 피부조직 채취한 후 방사

## 라. 검토의견 (\*\*\*\*\*)

### (\*\*\* 문화재위원)

- 1999년 12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천연기념물 산양과 사향노루의 분포와 생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역에 단지 15마리의 사향노루(전남 지리산 4마리, 강원 아미산 2마리, 대암산 2마리, 황병산 1마리, 건봉산 4마리, 경북 비룡산 2마리-보고서 표14에서 합계 15마리를 16마리로 오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환경부의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의 서식지 관리 및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국내에 20-3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따라서 8년(1999년-2007년) 사이에 5~15마리가 자연 증가되었다고 산술적으로 단순히 추정하여 현재에 적용하여도 국내에는 20마리 내지 45마리에 지나지 않는 사향노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향노루가 국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90%가 민통선 지역에 한정되어 서식한다고 가정하여도 최소 존속개체군인 50개체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개체수가 아니다. 더구나 이는 사향노루를 IUCN에서 구분하는 머지않은 장래에 멸종 위험에 처한 취약종(VU)의 개체군으로서 조차 매우 부족한 개체수이다.
-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서식지외보전기관(ex situ conservation institution)에서 사향노루를 증식하여 재도입(reintroduction)이나 이입(translocation)으로 재강화/보충(reinforcement/supplement) 하는 것은 개체수 확보나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 그러나 사향노루의 개체수가 극소수인 현재 상황에서는 포획과정에서 사향노루의 서식지가 교란될 개연성이 크고, 안전이 입증된 포획법이 없어 시료 채취 과정에서 사향노루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포획 후 방사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향노루의 서식밀도, 개체수, 행동권 등 서식실태를 확인하는 과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문화재청이 사향노루 포획을 허가(2006년 4월)한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지고 이에 걸 맞는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만일 사향노루의 염색체 및 유전자 검사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2006년 9월 25일(한국가축위생학회지 30권 3호 462쪽) 사향노루를 포획한 후 방사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거나, 서울대 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CGRB)이 사향노루 사체 두개골 코점막, 털 및 가죽에서 분리하여 유전자 분석을 한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 전문위원)**

- 우선, 사향노루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기초연구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단, 사향노루는 그 개체수가 적고, 분포범위도 강원도 비무장지대 인근으로 제한되어 서식하는 종으로서, 국가 차원(문화재청,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종임.
- 특히 사향노루가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지자체에서 역시 본 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로서, 앞으로 사향노루 기초생태 연구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기도 함.
- 따라서 장수군에서 비무장지대의 사향노루를 포획하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종 복원 및 관리정책(환경부 등)에 부합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간의 공동연구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포획지역 지자체 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금번의 연구계획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한국에서 이 동물의 생존 개체군은 극히 적은 것으로 예상되며, 서식현황 정보도 매우 부족한 현상태에서 금번 연구계획과 같이 직접 포획을 통한 연구의 시행은 자칫 불필요한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시점에서 부득이 유전자 연구를 하고자 하더라도, 포획이 아닌 비포획적 연구방법을 우선 선택하여, 혹시 사향노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안전하고도 신중한 연구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한 비포획적 연구방법으로는, Hair Trap 조사법(털 샘플 채취법)을 통한 유전자 분석, 또는 현장 배설물 채집을 통한 유전자분석법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방법 들이 있을 수 있음.)
- 그와 같은 다양하면서도 신중한 연구조사들이 충분히 선행되고 난후, 그 다음 단계에 비로소 포획연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됨. 물론 이 경우에도 사향노루의 포획연구는 반드시 중앙정부(환경부 관련기관 등) 및 관련 지자체와의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금번 제출된 포획 허가 계획서는 반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그보다는 비포획적 방법으로 연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2.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조정 검토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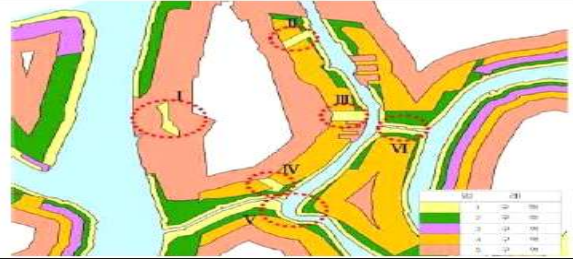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조정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조정

현재 기준		변경 기준(안)	
			
구분	기준변경	면적 (천㎡)	비고
서낙동강 철새 서식공간 확대(A)	2→1구역	123	수면경계로부터 100m
	5→1구역	113	
	계	236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B)	I	1→5구역	43
	II		28
	III	1→4구역	41
	IV		26
	V	1→2구역	62
	VI		13
	계	-	213
1구역 증감(A-B)			증 23

### 라. 검토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조정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문화재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      )		
1			
2	β )      n	β )      n	
3	δ )      n	δ )      n	
4	φ )      n	φ )      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임</li> <li>-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li> <li>-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li> <li>-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li> </ul>		

바. 의결사항 : 보류



### 3.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탐방로 정비

####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일원의 낙석위험이 있는 탐방로를 철거하고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육담폭포 일원의 낙석위험이 있는 탐방로를 철거하고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일원
  - 지정일 : 1965.11.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안전사고(낙석) 우려지 우회 탐방로 개설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임
  - 사업내용
    - 기존 철계단 및 데크 철거 181m, 출렁다리 설치 43.7m, 아치형 목교 설치 181m, 데크 및 계단 설치 90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탐방객을 낙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회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13.7.29)

<\*\*\* 문화재위원>

- 신청 사업은 낙석 위험이 큰 탐방시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 현재 제출된 계획안은 육담폭포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계획으로서, 육담폭포의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바. 의결사항 : 부결

## 4. 「산골뚝나비」의 종 및 서식지 보전·복원 연구

### 가. 제안사항

멸종위기종 산골뚝나비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생태적 특성 파악 연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라산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산골뚝나비의 종 및 서식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산골뚝나비 포획 및 방사를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58호 산골뚝나비
  - 소재지 : 한라산 1300m 이상의 초지
  - 지정일 : 2005. 3. 1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멸종위기종 I급 산골뚝나비 학술연구
  - 사업위치 : 한라산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
  - 사업내용
    - 산골뚝나비의 분포현황 정밀조사
    - 산골뚝나비 모니터링 코스와 구간 설정
    - 산골뚝나비 서식지의 메타개체군 크기, 암수비율, 생존율 추정
    - 산골뚝나비의 이동거리와 범위 추정
  - 조사방법
    - 벨트 조사법
      - 3-5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각 구간에서 관찰되는 나비를 조사
      - 육안에 의한 관찰법으로 실제 나비의 생존에 영향이 없음
      - 고도별 구간의 설정으로 기후변화와 서식지 변화를 연차적으로 추적 가능
    - MRR 조사법(Mark-Release-Recapture)
      - 나비를 포충망으로 포획 후 뒷날개 뒷면에 매직펜으로 표시 후 방사하는 작업 반복
      - 이후 표시된 개체가 다시 채집되는 회수 등을 분석하여 개체의 밀도 및 이동경로 등을 파악
      - 개체의 생존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나비목 생태연구 조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 라. 검토의견

### (\*\*\* 문화재전문위원)

- 산굴뚝나비는 현재 서식처의 파괴 및 서식환경의 악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개체군 밀도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음.
- 산굴뚝나비는 성충의 발생소장으로 보았을 때 7월이 최성기이고 8월에 와서는 서서히 감소추세에 있다가 9월 초순경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생활사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조사일정(8.12 - 9.13)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이미 최성기의 출현이 지나서 소수의 개체군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물의 신뢰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년 (2013년)의 연구조사 사업은 의미가 없으며 발생의 최성기를 지나서 허약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MRR 조사법 등을 시행한다는 것은 산굴뚝나비에겐 큰 위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부득이하게 포획, 조사과정 중 사망한 개체들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제출케 한 후 나중에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보관 전시하게끔 처리바람.
- 천연기념물종의 서식지 보전·복원을 위한 포획이 자칫하면 합법적으로 살생의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국립수목원 \*\*\*박사)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58호 산굴뚝나비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학술연구계획서를 검토한바,
- 당 연구는 포획-재포획법(Capture-Recapture Method (연구신청서에는 MRR조사법으로 되어 있음))에 의한 개체군 서식밀도 및 생태조사 관련 연구이며, 본 조사방법에 의한 포획은 재방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개체 생존 및 개체군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연구방법임.
- 따라서 천연기념물 제458호 산굴뚝나비 현상변경허가(포획) 신청에 대한 허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계획서에 제시된 것처럼 데이터 확보를 위한 포획, 즉 재방사를 전제로 한 포획만 가능하도록 하고, 표본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포획, 즉 천연기념물 제458호인 산굴뚝나비의 서식지외 반출은 금지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사로 확보된 데이터 등은 천연기념물의 서식실태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연구종료 후 혹은 연구 중이라도 필요시 문화재청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5.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7차 위원회에서 층고·외형에 대한 설계 보완을 이유로 보류되어 재심의하는 사항임
  - \* 2013. 5.24 야간조명, 인위적간섭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상변경 불허처분
  - \* 2013. 6.26 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됨
  - \* 2013. 7.10 천기분과위원장 등 현지조사 실시
  - \* 2013. 7.24 7차 문화재위원회 회의 : 보류(층고·외형에 대한 설계보완 제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업인복지회관설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5-1번지
  - 보완 제출 내용 : 층고·외형은 기존과 같으나, 성토를 최소화 하여 도로 쪽에서 조망했을 때 2.5층이 되도록 설계하였음.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1,561.00m <sup>2</sup>	
건축면적	519.75m <sup>2</sup>	
연 면 적	1,260.25m <sup>2</sup>	
건 폐 율	33.30%	
용 적 율	80.73%	
층 수	지상3층	당초 계획 유지
최고높이	13.6M	
사업명	강서구농업인복지회관	
지역,지구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각진 부분을 완만하게 하여 모서리를 둥근직사각으로 변경
외부마감	옥상녹화(외벽녹화)	

- \* 차폐를 위해 수변쪽으로 식재 배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6개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건물 신축 대상지역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기존 규모 재·개축)하는 지역으로 건축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건물 신축부지의 문화재구역으로부터의 거리, 철새에 대한 영향, 문화재 주변 경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위원\*/'13.7.10>

- 강서농업인복지회관 2차 사업신청서는 1차 사업신청서와 비교하면, 건물의 높이를 16m에서 13.6m로 낮추고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을 다소 낮추어 작성한 것임.
- 부산시 강서구 지역이 낙동강 하류의 농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서, 농업인복지회관의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됨.
- 현지조사 결과, 사업대상지역은 강에 바로 인접된 지역으로서, 철새도래지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변경 신청한 건물도 규모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됨.

<\*\*\* 위원\*/'13.7.10>

- 사업지는 하천경계구역과 도로(가락대로) 사이에 위치하며, 도로건너편에는 주거지역과 중, 고등학교가 있어, 사업지역 일대는 서낙동강 철새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강서지역 일대 농경지는 낙동강하류 일대에 도래하는 철새의 먹이터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통한 미수확 벼존치, 벼짚존치, 무논조성 등 철새보전사업에 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한 지역임
- 건물의 야간사용 금지 및 야간조명 미설치, 강변 차폐림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등의 설계보완으로 운영시 철새의 서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지가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1구역인 점, 본 시설이 농업인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며, 낙동강 철새보전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13.7.10>

- 동 지역은 폭 약50m 거리의 도로를 경계로 바깥에는 이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과 접해있는 안쪽은 허용기준 1구역으로 경작지가 대부분임
- 강서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라는 필요성을 감안한다지만 규모면에서 주변을 압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그러나 강서구청에 의하면 본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주변도 포함)에 포함되나 농업인복지회관 등 공익사업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그 외 용도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소유자들이 알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따라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의 중요성과 낙동강철새도래지 관리 주체인 지자체(강서구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13.7.10>

- 건축 예정 지역은 서낙동강 서측 하안의 천변 범람원 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임
- 현재 이 지역 하안의 서측 배후에는 도로가 지나가며, 도로 건너편에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 지역 하안의 남측에는 공장 건물 등이 들어서 있고, 북측에는 농원 등이 조성되어 있음
- 따라서 주변의 원 지형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나, 사업 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 하안 일대는 철새들의 먹이활동 및 잠자리 지역으로 사용되는 지역임으로, 건물 신축에 따른 지형변화에 의해 철새 서식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역에서의 농업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명칭 그대로 이 지역 농업인의 복지 문화를 제고시키기 위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임으로, 건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으로 인한 이 지역 철새들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 할 때, 건물 신축은 이 지역이 철새서식지의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6.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선착장 조성 등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생태탐방선 운항 및 선착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내 선착장 조성 및 생태탐방선 운항을 위해 신청한 건으로 7차 위원회 심의시 선착장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토록하여 보류된 사안으로 자료보완에 따라 재심의회하는 사안임.

\* '13. 5.22 5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 부 결(선박운항항로에 대한 검토 필요)

\* '13. 7.24 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 류(추가 선착장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선착장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58번지 일원

○ 보완내용 : 당초 항로계획을 수정하여 기존 확정된 선착장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탐방선 항로계획 수정제출

\* 생태탐방선 운항

- 운항구간 : 을숙도-맥도생태공원 - 화명생태공원(14km)

- 운항시기 : 4월~10월(철새도래시기 운항금지)/09~18시/주중 1일2회/주말1일3회

- 운항속도 : 10노트(18.52km/hr)

- 선박제원 : 20톤급(L=20m / 선폭(B)=4.5m / 30~50인승)

\* 을숙도 선착장

			( )
		-	7
( )		① ②	-
		③ ④	-
			⑤ ⑥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정기적인 생태탐방선 운항에 따른 철새서식 여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 5.16)

< \*\*\* 문화재위원 >

- 사업지는 현재 어선 등의 선박이 운항하는 수로상에 위치하며 소규모의 잔교(수면부)와 이동식 관리동 및 화장실(육상부)로 철새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곳 선착장이 조성되면 유람선이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상류의 맥도 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등을 경유하면서 화명생태공원까지 운행될 예정으로 있어 철새의 월동 및 번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을숙도에는 이미 남쪽 하단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탐방체험용 선박이 1코스(상류탐방: 갑문을 거쳐 화명생태공원까지), 2코스(하류탐방: 대마등, 진우도, 가덕도 등)로 운행하고 있으며, 상류에도 맥도와 엄궁에 선착장이, 장인도, 삼락, 대저, 화명 생태공원에 계류장 또는 나루터가 조성되어 있어 선착장 추가조성은 유람선 운행의 활성화를 가져와 철새보호에 역행하는 셈이 된다고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 물새들은 유람선 운항코스로 나 있는 맥도생태공원 선착장, 삼락생태공원 계류장, 대저생태공원치수호안, 화명생태공원계류장에 흩어져 물위에서 무리를 지어 잠자리(roosting area)를 만들고 있음.
- 철새들의 채식 및 휴식공간인 이들 지역에 유람선 계류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철새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우려됨.
- 본 신청건 관련 선착장 조성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영향뿐만아니라 정기적인 유람선 운항에 따른 철새도래지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7.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
  - 사업내용
    - 토지형질변경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변경 내용	변경 면적
시	구	동			
부산	강서	죽림	***	답→대지	330㎡
합계			1필지		330㎡

- 주택신축 규모

· 규모 : 2층 1동 / 높이 9.95m / 연면적 : 227㎡ / 건축면적 : 138㎡

○ 사업기간 : '13.9.2~'13.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1구역 기준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해당 지역은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1구역(기준규모재·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문화재지정구역에 인접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8.22)

<\*\*\* 부산시 문화재위원>

- 본 사업지의 주변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식만로), 비닐하우스, 경작지, 전원주택, 공장용 창고 등이 혼재해 있음.
- 본 사업의 개인용 단독 주택이 친자연환경적 건축행위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아지나 본 사업지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약18m로 짧아 향후 문화재 지정구역에 인위적 간섭현상의 증가에 따른 철새도래지 보호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상존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8.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 조성

###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주변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를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7차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필요를 이유로 보류되어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는 사안임.
- \* '13. 8.6 문화재위원 등 4명 현지조사 실시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인천 연구수 해송로 30번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 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 \*\*\*\*\*
  - 사업내용 : 1~2m 성토

	*	Ⓢ	Ⓢ
	*	Ⓢ	Ⓢ
		Ⓢ	Ⓢ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3.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허용기준 1구역·2구역/기존규모 재개축/5m이하)

### 라. 검토의견(\*\*\*\*\*)

- 해당부지는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지역으로 유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성토를 통해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8.6)

#####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수년간 방치된 양식장과 인접한 논을 1~2m 성토하여 농지(전)으로 전환하는 사업임
- 본 신청부지는 해안갯벌의 일부를 제방을 쌓아 양식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은 밭과 산림이 분포하고 있음
- 현지조사 시에 본 사업지역 앞의 갯벌에서 저어새 1개체가 비행하여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어 갯벌이 저어새의 서식지로 확인되었으나, 본 양식장의 수심이 깊어 만조시 저어새를 비롯한 도요물떼새 등 얕은 수심을 이용하는 섭금류의 배후습지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문헌조사, 현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이 저어새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위원>

- 양어장으로 이용하던 저수지를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 매립하여 단순히 농지로서만 사용한다면 허가해도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부지내 우수 및 오수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한다.'에서 '오수의 배수로'설치가 농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오수가 발생한다면 오수 처리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함.

##### < \*\*\* 문화재위원>

- 사업 예정 지역은 강화도 서측의 갯벌 해안에 위치한 유지(농지)로, 양식장이 조성된 후 방치된 상태임
- 방치된 유지의 성토에 의한 농경지 조성이 이 지역의 해안 경관이나 저어새 번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1)

###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동원\*\*\* 대표/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 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태양광발전소 설치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 사업내용
    - 태양광 모듈 설치
      - 8,000장(40mm×986mm×1,632mm) / 설치면적 : 36,500m<sup>2</sup>
    - 기계실 : 연면적 180m<sup>2</sup> / 높이 7.2m / 일반철골구조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6 . 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허용기준 1구역·2구역/기준규모 재개축/5m이하)

### 라. 검토의견(\*\*\*\*\*)

- 해당 부지는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지정구역 주변 수변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규모 태양광 모듈설치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8.6)

##### < \*\*\* 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발전사업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잡종지)를 대부분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본 신청부지는 갯벌과 육지가 연결되는 이행대로(문화재 이격거리 0m), 전형적인 해안사구지형이며 현재는 초지와 잡목이 분포하고 초지는 갯벌체험을 위한 캠핑장과 간이 샤워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잘 발달된 해안사구는 지형, 경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형으로 원형보존이 필요하며, 본 지역을 포함한 해안 일대의 해안사구는 향후 복원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 \*\*\* 문화재위원 >

- 기획재정부 소유지를 대부분 받아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여 발전하려는 개인 사업임.
- 사업예정지는 갯벌의 우수한 경관이 바다다 보이는 해빈지역으로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갯벌 경관의 훼손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하여야 함.

##### < \*\*\* 문화재위원 >

- 사업 예정 지역은 주문도 서측의 뒷장술해수욕장(조간대 해빈)과 접하여 있는 해빈 배후의 평탄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의 지표는 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면의 해안은 사질의 조석평원(tidal flat)이 넓게 펼쳐 있는 해안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난 지역임
-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태양광전지판 설치하는 강화갯벌의 경관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의 현재 자연환경이 원형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부결

## 10.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2)

###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동원\*\*\* 대표/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 지정일 : 2000. 7.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태양광발전소 설치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 사업내용
    - 태양광 모듈 설치
      - 2,000장(40mm×986mm×1,632mm) / 설치면적 : 7,284m<sup>2</sup>
    - 기계실 : 연면적 72m<sup>2</sup> / 높이 3.6m / 경량철골구조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6 . 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주변(허용기준 2구역/재개축/5m이하)

### 라. 검토의견(\*\*\*\*\*)

- 해당부지는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구역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8.6)

#####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발전사업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대부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본 신청부지는 갯벌해안의 제방에 인접한 잡종지로 잡초가 무성한 초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임
- 본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주변 환경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이 갯벌 및 저어새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문화재구역과의 이격거리(현 11m)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기획재정부 소유지를 대부 받아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여 발전하려는 개인 사업임.
- 사업예정지의 해안쪽에 남북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는 소로를 넘어 발전시설을 설치 않는다면 갯벌의 경관이나 저어새 번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하여도 좋을 것임.
- 전신주 등 송전 시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 문화재위원>

- 사업 예정 지역은 주문도 동측의 갯벌과 접하여 있는 해안 지역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1 및 2구역에 해당하는 잡종지이며, 현재 이 지역의 지표는 잡초와 야적된 폐기물로 덮여 있음
- 이 지역에서의 태양광전지판 설치가 저어새 번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해안에 바로 접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서의 설치하는 해안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구역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보류

## 1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108법당 신축

###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내에 108법당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108법당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일원
  - 지정일 : 1965.11.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신흥사 108법당 신축사업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번지
  - 사업내용 : 신흥사 108법당 건립(지상1층, 357.64m<sup>2</sup>)
    - 정면 7칸, 측면 4칸, 목조다포식 내외 각 9포작, 팔작지붕, 화강석기단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신흥사 내 청동대좌불 전면에 108법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설악산 탐방객의 주 통행로임을 감안하여 신청안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13.7.29)

<\*\*\* 문화재위원>

- 108법당은 청동대좌불과 연관된 불교 건축물로서 한옥으로 지어지는 것이므로 경관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08법당과 청동대좌불 사이에 가로지르는 도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모든 입산객이 지나야 하는 도로임
- 108법당을 가능한 대불방향으로 당겨짓고, 법당 밖으로 도로가 충분한 폭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2. 「고양 송포 백송」 주변 소매점 신축

### 가. 제안사항

「고양 송포 백송」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양 송포 백송」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농업회사법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207번지
  - 지정일 : 1962.1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번지
  - 사업내용 : 소매점 신축(지상1층, 132.84㎡, 높이 5.5m, 경량철골조)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80m(허용기준 1구역, 기존규모 재·개축)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송포 백송 주변에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에 해당(기존규모 재·개축)하여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에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13.8.13)

<\*\*\*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60호 송포 백송과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소매점 신축 부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이미 기존에 신축된 건물들이 여러 채 존재함
- 소매점 신축부지는 기존의 건물들이 있는 위치와는 달리 지반이 낮은 농경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축고(5.5m)도 높지 않음
- 소매점 신축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이나 기타 경관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3.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본수준점 설치

####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동도 선착장 부근 자연암반에 기본수준점(동판제) 2개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독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본수준점(동판제) 2개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국립해양조사원)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지정일 : 1982.11.16.

(3) 신청내용

○ 사업명 : 기본수준점 설치

○ 사업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도 선착장 부근(자연암반 2곳)

○ 사업내용 : 기본수준점(동판, 12cm) 2개 매설

\* '89년 기준점 2개를 매설,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존재('08년 이후 조사 곤란)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독도의 단기조석 관측 및 높이 측정 기준조사를 위해 기본수준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설치된 기준점에 대한 철거계획에 검토 및 기준점 설치에 따른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기존수준점의 설치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경미한 시설로서, 설치 위치도 선착장 부근이므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해 가능한 드러나지 않는 형태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4.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조형 표지석 설치

###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선정 관련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관광지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안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 지정일 : 1965.4.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관광지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94-6 제방(홍도항 여객터미널 인근)
  - 사업내용 : 상징 조형물 설치(화강석, (H)3.3m×(W)3.1m×(D)0.6m, 비고정식)
    -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 및 1004섬 신안 이미지 구축<신안군이 천사로 1004번길>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홍도에 대해 국내 최고 관광지로서의 상징성 부각,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를 통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상징물 설치는 홍도항 여객터미널 진입로(오수정화처리 중계펌프장 앞) 변으로 주변은 건물 등 기존 개발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1004섬 신안 이미지를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라 함
- 그러나 상징물은 천연보호구역인 홍도의 상징성이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남발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15.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관광농원 신축

###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관광농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관광농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농업회사법인 \*\*농원(대표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일원
  - 지정일 : 1966.10.1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관광농원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상호동 \*\*\*\*번지 외 11필지
  - 사업내용 : 관광농원 신축(대지면적 18,805㎡, 건축면적 1,233.3㎡, 높이 9m)
    - \* (기존) 2동, 바닥면적 1,567.75㎡ → (신청) 8동 1,495.87㎡
      - 관리실(43.49㎡), 휴게음식점(507.43㎡), 화장실(61.94㎡), 농기계창고(67.26㎡), 농산물판매점(45.6㎡), 관리인숙소(217.26㎡), 농업전시관(509.4㎡), 관리실(43.49㎡)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m(허용기준 2~4구역)
  - \* (2구역) 기존 건축물 개보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 (3구역) 건축물 2층이하(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4구역) 도시계획조례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13.8.9)

<\*\*\* 문화재위원>

- 한라산길을 따라 서귀포에 이르는 끝부분에 위치하며, 북쪽편에 2층 콘크리트 건물(1,421.71m<sup>2</sup>)과 남동쪽에 1층 건물(146.04m<sup>2</sup>)이 있고 건물사이의 부지는 나지이나 서쪽 도로변과 동쪽 일부는 수목이 있음(동쪽은 한라산과 연결된 수목들이 포함)
- 북쪽편 건물은 당시 종교시설로 지어졌다고 하나 약10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아 흉물처럼 남아있고 동남쪽 건물은 사용 중이나, 신청한 건물 8동 중 2동은 재축, 6동은 신축임. 또한 5동은 역사경관지역 2구역에 그리고 3동은 3구역에 포함됨
- 본 관광농원 신축은 개인재산으로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인정되지만, 많은 건물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동쪽에는 중요한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한 점 등으로 한라산 보호구역 주변경관의 훼손이 우려됨.
- 따라서 현 사업계획을 적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서쪽 도로변은 3구역이라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므로 건물이 3구역으로 집중될 경우 도로에서 완전 노출되어 오히려 경관훼손이 심할 수 있어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내부 조경을 보완하여 승인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16.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공장 신축

### 가. 제안사항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 소재지/지정면적 :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89-11/657㎡
    - 지정일 : 1967. 07.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공장신축
    - 사업위치 :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513번지의외 1필지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2층 1개동
      - 건축면적/연면적/높이 : 1,386㎡/1,554㎡/11.4m
    -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40m이격
- ※ 2구역 :  
) 5 , 6

### 라. 검토의견 (\*\*\*\*\*)

- 해당 지역은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문화재지정구역에 인접하는 지역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 참고자료

- 김해시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 검토 의견(2013. 07. 31)
  - <경남도 문화재위원 \*\*\*>
    - 규모와 시설이 천연기념물 보존·보호에 영향이 클것으로 사료.
  - <경남도 문화재위원 \*\*\*>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음.
  - <김해시 학예연구사 \*\*\*>
    - 천연기념물과 거리가 가깝고 건축 규모가 커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현지조사 의견(2013. 8. 9)
  - <\*\*\* 문화재전문위원>
    -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주변 지역 건축물 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허용기준상 2구역에 해당되고 건축면적 1,386㎡ 연면적 1,554㎡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건축물이 신축될시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상변경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 바. 의결사항 : 부결

## 17.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지정

### 가. 제안사항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이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기 봉산동 향나무」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사항임.
- \* 추진경과
  - 2013. 06. 14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조사(문화재위원등 3인)
  - 2013. 06. 26 제6차 천기분과위원회 지정검토
  - 2013. 07. 04 ~ 08. 03 보호구역 확대 지정 예고(의견수렴결과 :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 소 재 지/지정면적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동 128번지/314m<sup>2</sup>
  - 지 정 일 : 1982. 11. 9.
-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 보호구역 추가 지정 :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1,336m<sup>2</sup>)
  - ※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라. 검토의견 (\*\*\*\*\*)

- 향나무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현지조사 의견(2013. 6. 14)
  - < \*\*\* 문화재위원\* >
  - 연기 봉산동 향나무는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구역이 극히 협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향나무의 보존 및 생육을 위해 상기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 연기 봉산동 향나무는 강화최씨 최완이 조선 중종대 낙향하여 이 마을에 정착한 후 그의 아들 중룡이 심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도 민가의 앞뜰에 위치하고 있음
-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개인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향나무가 위치한 314㎡에 한해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소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음
- 따라서 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지정구역 확대조정 신청한 내용 (314→1,650㎡)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대상 부지는 가능한 매입하여 효율적인 보존은 물론 충분한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나무는 일부 뿌리에 복토가 예상되며, 수형의 획일적인 유인 등 잘못된 보존 관리의 흔적이 있어 지정구역 확대와 함께 정밀한 조사 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 문화재위원 >

-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확대 신청지(128번지)에 있는 씨멘트블록담장(블록 16단)과 -자형 목조 슬레이트 건물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향나무와 근접하여 뽕나무 1주가 식생하고 있음
- 신청지(128번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향나무 주변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확대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향나무의 생육 등에 대한 학술조사·연구와 병행하여 생태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씨멘트블록담장, 슬레이트 건물, 뽕나무 등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호구역 지정 내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총 면적	지정 면적	추가 면적	합계	주소	성명
합계 2필지					314	1,336	1,650		
1	세종시 조치원읍	128	대	1,558	222	1,336	1,55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레미안 *****	****
2	봉산리	산20-11	임야	212,851	92	0	92	봉산리 ***	강화최씨 천곡종 외 1인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해송림 종합관리 시범사업

###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해송림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해송림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5차 위원회 회의 시 ‘관련 전문가 현지조사 후 결정’으로 보류된 바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번지 등
  - 지정일 : 1962.12.0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해송림 종합관리 시범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번지
  - 사업내용 : 숲가꾸기(숙아베기, 고사목제거, 덩굴제거, 하층제거)
- (4) 문화재와의 거리 : 허용기준 상 2구역(5.2ha)

### 라. 검토의견 (\*\*\*\*\*)

- 사업대상지역 하부 동굴 보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유산지역의 주변경관 및 식생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8.9)

### <\*\*\* 문화재위원>

- 2013년05월16일의 1차 서류검토시에는 단순히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였으나 2013년08월09일 현장조사 결과, 고사목 제거를 비롯하여 덩굴제거(피압목 제거), 슈아내기와 하층제거(수관경합목 제거) 등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려는 시범사업 3곳 중의 한 곳으로 선정된 사업이었음.
-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자연유산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을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변화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받은 후 재검토하여야 함.

### <\*\*\* 문화재위원>

- 본 지역은 본래 해송림이 우점종이었으나 점점 쇠퇴화되고 상록활엽수가 빈공간을 차지하여 번성해지고 있는 식생의 구조형태임
- 해송림 종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은 고사목, 피압목, 수관경합목 등 불필요한 수목을 제거하고 빈공간을 차지한 상록활엽수를 육성하고자한 사업이나 일시적인 강도간벌은 갑작스런 변화로 위험성이 있음
- 따라서 살아있는 수목의 제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고사목 등 불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약도 간벌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 참고사항

- 1차는 3구역 전체 약도간벌을 시행하고 3~5년 간격으로 2차(2구역), 3차(3구역)로 나누어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부결

## 19. 「제주 수산동굴」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

### 가. 제안사항

「제주 수산동굴」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 수산동굴」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998 외
  - 지정일 : 2006. 2.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산리 일반음식점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관광음식점) 1개동 1층 495.50m<sup>2</sup> 신축
- (4) 문화재와의 거리 : 약 1m (허용기준 상 1~2구역)

### 라. 검토의견 (\*\*\*\*\*)

- 사업대상부지는 지정구역 경계와 인접하여 1~2구역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동굴 상부의 개발행위는 지표면의 환경변화를 유발하므로 하부에 위치한 동굴 보존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8.9)

#### <\*\*\* 문화재위원>

- 용암동굴인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은 총길이 약 4.5km에 이르는 대형동굴로서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세계자연유산 지구로 추가 등재 대상 동굴로 선정되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 사업예정지는 대부분 현상변경 허가 기준 1구역에 해당되며,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하여 주변경관이 좋고 근처의 오름이나 관광시설을 찾는 많은 관광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임.
- 따라서, 이 일대의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경관이나 동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신축은 불허되어야 함.

### 바. 참고자료 (\*\*\*\* 의견)

- 민원인이 신청한 사업부지는 천기 제467호 제주수산동굴 경계와 인접한 부지로서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고시되어 있음에 따라 건축주는 동일부지내 가장 외곽지역에 건물을 배치하여 신청하고 있으나, 터파기시 진동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사. 의결사항 : 부결

## 20.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마을공동작업소 신축

### 가. 제안사항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마을공동작업소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마을공동작업소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삼척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일대
  - 지정일 : 1966.06.1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마을공동작업소 신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56번지
  - 사업내용 : 마을공동작업소(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1동 66.3㎡ 신축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사업대상지역이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대금굴·환선굴·관음굴의 하류방향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동굴 보존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변경관 보호를 위해 최대한 진입도로에서 이격하여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8.14)

#### <\*\*\* 문화재위원>

- 사업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제178호(1966.06.17.)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지정구역(6,608,668㎡) 내의 주 접근도로에 근접하고 있으며, 대이리 동굴지대 내의 대표적 동굴인 관음굴(비공개), 대금굴(공개), 환선굴(공개)의 하류에 위치함.
- 신축 시설은 지정구역 내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옥수수, 감자 등) 저장을 주목적으로, 삼척시에서 현지 주민의 사유지를 무상임대해서 현지 농민들을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임.
- 현재의 설계도에는 도로에 가깝게 신축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가능한 한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신축하고, 상록수를 심어 차폐토록 하면 허가해도 무방할 것임.

### 바. 참고자료 (\*\*\*) 의견)

- 삼척시 신기면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서 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함.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21. 「공주 고마나루」 내 보행자 전용 육교 설치

###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보행자 전용 육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공주 고마나루」 보행자 전용 육교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공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소재지 : 공주시 웅진동 산22-1번지 일원
  - 지정일 : 2006.12.0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공주 고마나루」 보행자 전용 육교 설치
  - 사업위치 : 고마나루 및 접경지역
  - 사업내용
    - 공주 고마나루 보행자 전용 육교 : 폭16.8m × 길이80m × 높이 6.8m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4. 6.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연미산과 정지산의 무령왕릉, 공주 고마나루와 공주 백제의 숲을 연계하고자 보행자 전용 육교(지맥연결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역사유적을 네트워크화하여 각 유적간의 단절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 보행자 전용육교가 지상으로 설치시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공주 고마나루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상계획보다는 ‘지하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 8.16)

< \*\*\* 문화재위원 >

- 지맥 연결로 기본계획은 도시화된 지역에 활용하는 지극히 현대적인 구조물로서, 고마나루의 전통경관을 크게 훼손시키는 시설물임.
- 제시된 안은 현재 고마나루 경관을 단절시킨 백제대로를 가로질러 지맥을 연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처럼 작은 폭원의 구조물은 단순한 이동통로 정도에 불과한 구조물이며, 오히려 고마나루의 역사경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솔밭 길이에 해당하는 백제대로 긴 구간을 지하화하여 연미산 조망지점에서 볼 때, 단절된 양측을 시각적으로 완전히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단순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량의 속도를 줄여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보차공존의 방법의 도입이 현안과 같은 구조물 설치보다는 오히려 좋은 방안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22. 「공주 고마나루」 내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내 단독주택 허가사항에 대해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공주 고마나루」 내 단독주택 허가사항에 대해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소재지 : 공주시 웅진동 산22-1번지 일원
  - 지정일 : 2006.12.0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공주 고마나루」 내 단독주택 허가사항 증축 변경허가 신청
  - 사업위치 : 고마나루(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 \*\*\*)
  - 사업내용

구분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사항	비고
사업명	단독주택 신축	단독주택 증축	
건축면적	83.61㎡	93.87㎡	증축면적 10.26㎡
구조	경량철골조(지상 1층)	경량철골조(지상 1층)	
지붕	칼라아스팔트싱글	칼라아스팔트싱글	
사업기간	2013.5.27~2013.8.31	2013.5.27~2014.8.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2013년 5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허가한 사항으로 당초 단독주택 83.61㎡ 신축을 93.87㎡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증축으로 인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의견 / '13. 8.16)

< \*\*\* 문화재위원 >

- 허가된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 도중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지 조사 결과 현재의 지형 및 공사 진행 상황, 인근의 주택 등을 고려할 때 증축의 허용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23. 「예천 선몽대 일원」 주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 가. 제안사항

「예천 선몽대 일원」 주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예천 선몽대 일원」 주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일원
  - 지정일 : 2006.11.16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예천 선몽대 일원」 주변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 사업위치 : 예천 선몽대 지정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 지점
  - 사업내용
    -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오천교 확장 공사

기존교량	신설교량
길이 350m×폭 10.5m(2차선)	길이 350m×폭 24.25(13.75m 2차선 확장)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400m이격

### 라. 검토의견(\*\*\*\*\*)

-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관련 도청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통량을 감안하여 기존 오천교(350m) 2차선도로를 4차선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임.
- 선몽대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약400m 이격되어 있으며, 이미 오천교가 설치되어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다리시설은 선몽대와 내성천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도록 설치하여야 함.

### 마. 참고자료(\*\*검토의견 / '13. 8.16)

< \*\*\* 문화재위원 >

- 신청 사업은 기존의 927번 도로(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계획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확장하는 도로가 평사낙안이라는 내성천의 풍광을 중시하는 명승 예천 선몽대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로와 교량이 수려하게 조성되어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24. 「태백 검룡소」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가. 제안사항

「태백 검룡소」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태백 검룡소」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3호 태백 검룡소
  - 소재지 : 「태백 검룡소」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 일원
  - 지정일 : 2010.08.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태백 검룡소」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 사업위치 : 태백 검룡소 일원
  - 사업내용
    - 이동통신중계기 : 콘크리트 전주 높이 16m, 설치 면적 3m<sup>2</sup>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중계기 위치가 문화재구역 내 탐방길 바로 옆에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마. 참고자료(\*\*검토의견 / '13. 8.16)

< \*\*\* 문화재위원 >

- 신청 시설은 검룡소 지역 내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다른 유사 시설과의 공유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진입로에서 너무 잘 보이는 위치이므로 설치위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바. 의결사항 : 부결



## 25. 「부여 구드래 일원」 내 선착장 탐방객 편의시설 간이화장실 이축

### 가. 제안사항

「부여 구드래 일원」 선착장 탐방객 편의시설의 하나인 간이화장실 이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여 구드래 일원」 선착장 탐방객 편의시설 간이화장실 이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여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일원
  - 지정일 : 2009.12.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부여 구드래 일원」 선착장 탐방객 편의시설 간이화장실 이축
  - 사업위치 : 부여 구드래 선착장 1개소 및 구드래 잔디구장 2개소
  - 사업내용
    - 간이화장실 이축 3동
      - 부여 구드래 선착장 1개소 및 구드래 잔디구장 2개소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이축하고자 하는 화장실 3개소는 현재 홍수위 아래 위치하고 있어, 현행 법상 건축물 설치 불가지역으로, 홍수위선 위로 설치가 필요하며, 이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간이화장실로서 이축할 필요성이 있으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부여 구드래 일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을 백마강변 뚝 밖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26. 「광주 환벽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광주 환벽당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광주 환벽당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3.03.15 광주광역시 북구청 「광주 환벽당 원림」 명승 지정 신청
    - '13.07.18 지정조사 실시
- (\*\*\* · \*\*\* · \*\*\* 문화재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광주 환벽당 일원(光州 環碧堂 一圓)」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번지 18필지 일원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沙村金允悌, 1501~1572)가 노년에 자연을 벗 삼아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남도지방의 전형적인 유실형(有室形)정자로 가까이에는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가 흐르며 계곡아래 증암천(甞巖川, 창계천)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장관을 이뤄 자미탄(紫薇灘)이라 불렀으며, 특히 이 곳은 무등산을 비롯한 원효계곡의 줄기를 따라 자연 풍광이 수려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명승지였음
  - 환벽당 북쪽으로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증암천 너머에는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환벽당 아래에는 송강과 사촌이 처음 만난 곳이라는 전설이 깃든 조대(釣臺)와 용소(龍沼), 쌍송(雙松)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곳임

- 환벽당을 중심으로 호남시단(湖南詩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불후의 문사들을 배출하고, 당대 명류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가문학의 산실과 요람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별서원림임
- 면앙정 송순은 서하당 김성원이 식영정을 건립하고 3년이 지난 뒤 1563년 식영정의 시를 차운하며 ‘식영정과 환벽당’은 형제의 정자라고 하면서,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 동네에 3군데의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창계천)의 조대(釣臺), 용소(용소(龍沼), 소나무림과 죽림이 환벽당의 당호처럼 푸르름이 고리를 두르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시가문학과 관련된 국문학사적인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며, 고정원으로서 가치가 우수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문화를 보여주는 곳임
- 환벽당이 위치한 곳은 무등산 북능의 능선으로 북봉을 거쳐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지맥 중의 하나이며, 사촌 김윤제(1501-1572)가 태어난 충효마을 북쪽 200m지점에 있음. 또한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창계천(자미탄)을 사이에 두고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 경관을 보여주는 선경을 이루고 있음.
-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 소쇄공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있으며, 이 마을들 주변으로 식영정(息影亭)과 면앙정(俛仰亭), 송강정(松江亭), 은거를 위한 독수정(獨守亭)과 소쇄원(瀟灑園), 환벽당(環碧堂) 등 10여개 정자가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으로서 가치가 뛰어남
- 환벽당은 경관이 아름다운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 옆에 자리한 별서로써 당대 최고의 석학과 시인묵객인 송순, 임억령, 양산보, 김인후, 김성원, 기대승, 고경명 등이 드나들던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시문과 가사를 지으며 풍류 문화의 극치를 이룬 조선시대 사림문화의 별서원림의 중심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 환벽당의 초기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의 『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성원((1525-1597)의 “서하당유고“ 에 ”성산계류탁열도“등의 그림이 남아있어 인문지리적 가치가 있음
- 환벽당 관련 시·문은 당대의 일류 문인들로서 임억령, 기대승, 송순, 김

인후, 소세양, 정철, 백광훈, 고경명, 권필도, 정홍명, 목장흡, 이은상, 이하곤, 이명환, 김창흡, 조상건, 양경지, 정민하, 서봉령 등 시인묵객의 시가가 전해져 인문학적 가치가 있음

- 문화재구역 : 18필지 / 26,832㎡
- 문화재관리단체 : 광주광역시 북구청

## 라. 문화재 현황

### 【입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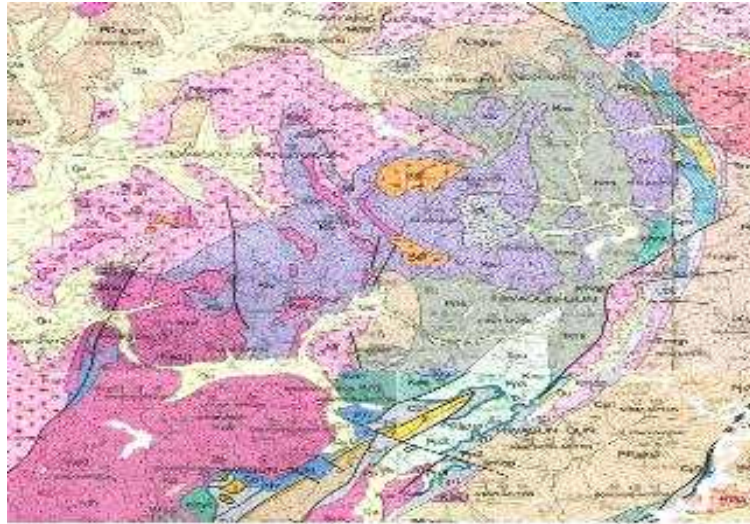
- 광주의 지리적 위치는 위도상 광주의 가장 동쪽점은 동경 127°00' 34", 북위 35°10' 34"로 충효동 비성골의 동부인데, 화순군 남면과의 경계지점임.
- 환벽당 원림 일대는 무등산 북능으로 북봉을 거쳐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능선 중의 하나이며, 무등산 북쪽 원효계곡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창계천(옛 이름 : 자미탄) 옆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1501~1572)가 태어난 충효마을 북쪽 200m지점에 위치함.
-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증암천(창계천)을 사이에 두고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별피)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음.
-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이 있고,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 등이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음.
- 환벽당을 찾은 많은 명사들이 이곳의 승경에 탄복하여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송순은 소쇄원과 식영정, 그리고 환벽당을 일컬어 '한 마을에 세 명승(一洞之三勝)'이 있다고 하였음.
- 광주지방은 겨울철에는 주로 서~북서풍에 의한 강설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호남서해안의 기후특성을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13.5℃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68mm이고 연평균 습도는 72%정도

### 【지형·지질 현황】

- 무등산 자락 광주호 위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환벽당이 있다. 환벽당은 광주광역시 충효동에 위치하며, 지방기념물 제1호로 지정됨. 환벽당을 끼고 있는 광주호 호숫가에 만들어진 호수생태원은 넓이 18만 4,948㎡의 생태공원으로,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 호수 안에는 버드나무군락지와 습지보전지역이 있으며 매자기, 애기부들을 비롯한 수많은 수생식물과 다양한 종류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 충효마을 입구에는 400년 수령의 왕버들나무가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2012.12.05)으로 지정.

- 무등산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 한 무등산 권역의 지질은 한반도 크게 선캄브리아 기반암류인 편마암류, 고생대 평안계에 해당하는 퇴적암류, 중생대 화성암류, 중생대 퇴적암류, 백악기화산암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가운데 무등산의 암석은 무등산석영안산암질응회암(구 데사이트), 화순안산암과 도곡유문암으로 구성.



[그림 1] 무등산 일대의 지질분포(KIGAM의 25만 광주, 여수, 목포 도폭 편집)

- 환벽당은 현재 신생대 제4기 충적층 위에 놓여 있으나 이 일대의 기반암은 주로 중생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생대 화강암류는 각섬석-흑운모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 반상화강암, 미문상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화강암류 가운데 소위 광주화강암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저반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무등산 서북부의 저지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광주화강암은 흑운모화강암과 화강섬록암의 두 암체를 묶어서 불림.
- 환벽당의 기반 암석은 중생대 화강암가운데 반상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환벽당과 소쇄원 일대에 분포되어 있음. 이 암체는 주로 중립적 내지 조립질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암상의 특징은 파쇄 엽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경 3cm 정도의 반정을 포함하여 반상 석리를 이룬다. 석기와 반정은 우세한 장석의 색깔 때문에 백색 또는 붉은색을 띠우며 유색 광물은 주로 흑운모로 되어 있음. 석영은 장석들과 연정을 가깝게 형성하여 미문상석리를 보일 때도 있음. 구성 광물로는 석영, 장석, 흑운모, 녹니석, 인회석, 저어콘 등으로 되어 있음.

#### 【역사문화경관 현황】

- 환벽당은 평소 자연경관에 관심을 가진 사촌 김윤제가 조선 명종조 1540년대 초에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 보내고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곳임
- 환벽당은 원래 사촌 김윤제의 본채 후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림은 환벽당 앞 아래로 낮은 경사 지형을 그대로 살려 담장을 두르고 원림을 조성하였음.
-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며, 가운데 2칸을 방으로 하여 앞쪽과 오른쪽을 마루로 간 변형된 형식임. 원래는 전통적 누정 형식이었으나 후대에 증축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뀜.
- 화강석을 둘러 연못을 조성하고, 환벽당 뒤로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대나무숲으로 들렀으며, 원림의 조성 수종으로는 대나무, 단란, 매화, 동백, 연 등이 있음.
- 환벽당은 본체가 가까이 있는 가택분리형 풍류형의 별서로 원림의 공간 구조는 담장 안의 내원과 담장 밖의 가시권에 있는 푸른 물이 흐르는 창계천과 창계천의 용소, 조대 등의 외원, 무등산을 바라 볼수 있는 영향권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환벽당 주위로 소나무와 대나무의 푸르름, 흐르는 푸른 물과 자미(紫薇 ; 배롱나무)와 대비되어 푸르름과 붉음이 항상 단아한 정취를 풍기는 창계천(滄溪川)과, 무등산 경치를 환벽당의 주위를 두루도록 하여 환경(環景) 경관처리 기법을 취하고 있음.
- 한편 환벽당의 초기 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序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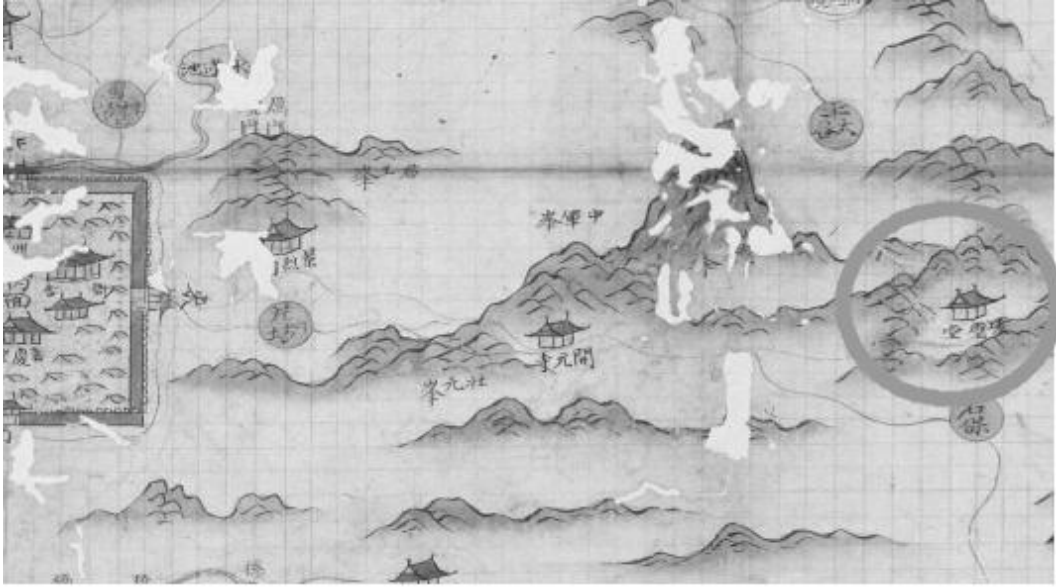
“  
. . . . .  
.”

- 환벽당의 모습은 1700년대에 들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김창흠(金昌翕)의 『南遊日記』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원림의 공간 구성과 수종 등을 알 수 있음.

□ ( )  
. . . . . ( )

- 김창흠은 1717년에 호남지방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이때 환벽당도 와서 보고 기행문과 시 한 수를 남겼는데 위 글을 통해 그 당시 환벽당에는 화계(花階)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동백꽃과 매화꽃이 심어져 있었고, 또

한 가운데는 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으며, 주변에는 울창한 대나무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 환벽당이 우리나라 전통원림이었음을 말해줌.



[그림 2] 비변사 인(印) 방안지도 상의 환벽당(확대)



[그림 3] 김성원 『서하당유고』 성산계류탁열도 (1590년)

-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의 『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음.
- 계산풍류(溪山風流) · 시가문화(詩歌文化) :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빈번히 일어난 사화로 인하여 선비들이 벼슬살이에 환멸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와 경치가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자연과 벗하며,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을 논하고 즐기던 조선시대의 고급문화를 형성하였는데, 무등산 일대와 담양 창평을 중심으로 수많은 누정들이 지어졌으며, 환벽당은





○ 고문(古文)·고시(古詩)에 나타난 인문가치 현황

- 환벽당 관련 시로는 임억령의 환벽당을 소재로 한 7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24수가 전하고, 송순의 환벽당 시 2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4수가 있으며, 김인후의 환벽당 시 3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1수가 있음.
- 소세양도 김윤제에게 주는 시 2수와 환벽당 시 5수를 남겼으며, 기대승도 <차환벽당송판부운(次環璧堂宋判府韻)> 1수, 정철도 <차환벽당운> 1수, 백광훈도 <환벽당> 1수, 고경명과 권필도 환벽당 관련시를 각 1수, 이밖에도 정홍명 2수, 목장흠 2수, 이은상 1수, 이하곤, 1수, 이명한 1수, 김창흠 1수, 조상건 2수, 양경지 1수, 정민하 1수, 서봉령 1수 등의 시가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환벽당 옆에 취가정을 경영했던 김만식의 시에도 환벽당을 읊은 시가 4수가 있음.
- 환벽당 대량에는 시문이 적힌 두 개의 현판이 걸려있는데, 하나는 임억령의 ‘환벽당’이라는 시이며, 다른 하나는 조자이(趙子以)의 한(漢)시인 <有感志懷 : 느낀 바 생각을 시로 읊어>임.
- 임억령의 시는 비운 뒤의 환벽당의 정취를 낭만적으로 읊고 있는 내용으로 임억령이 원림에서 창작한 시는 대부분이 단언하기 어렵지만 신선사상이나 노장사상을 띠고 있으며, 형태는 5언시를 선호했음이 특색이 있음.

○ 환벽당 관련 시와 문장1)

1) 송순(宋純, 1493~1582)

부안 군수 김공로가 우연히 환벽당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네 수를 장난삼아 주다. 아래 두 수에는 자서가 있다[聞扶安倅金公恭老 來寓環碧亭 戲贈四首. 下二首自敘]

山容水態一時新 산의 모습 물의 자태 일시에 새로우니  
賴是今朝得主人 참으로 오늘 아침 제 주인을 얻었는데  
惆悵未成携酒過 아쉽게도 못 이룬 건 술통 끼고 찾아가서  
臨風終夕岸烏巾 저녁 내내 바람 맞고 갓 빼뜰도록 취하는 일

(『면앙집(俛仰集)』 권3)

상사 김성원의 식영정 시에 차운하다 2수[次金上舍成遠 息影亭韻 二首]

때는 가정 계해년(1563)의 가을 주인 김군이 임석천을 위해 새로 이 누정을 지어 주니

석천이 '식영'이라 이름 붙였다.[時嘉靖癸亥秋 主人金君 爲林石川新構此亭 石川屆以息影]

維南多勝地 남도에 명승지 많아  
隨處有林亭 가는 곳마다 임정 있어라  
我臥村爲企 내가 누웠던 마을은 기촌인데  
君居山是星 그대가 가는 산은 성산이로구나  
親疏同世分 친소는 세상의 정분과 같고  
來往一家庭 오고 감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匹馬尋常到 필마를 타고 언제나 갈테니  
松關慎勿扃 소나무 사립문 닫아두지 말게

息影與環碧 식영정과 환벽당이  
今爲魯衛亭 이제는 형제의 정자 되었네  
溪山明似錦 시내와 산은 환하여 비단 같고  
第宅列如星 집들은 별처럼 늘어서 있네  
自可同風月 절로 풍월을 함께 할 수 있으니  
元非異戶庭 원래 집 뜨락 다른 것이 아니라  
只憐瀟灑老 다만 안타까운 건 소쇄 늙은이  
衰草沒雲扃 시든 풀 속에 구름 닫고 누워있음일세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이 일동의 삼승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이때에 소쇄옹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 구절에 옛날을 회상하는 뜻이 있다.[瀟灑園 息影亭 環碧堂 以一洞三勝稱之 時瀟灑翁已歿 故末句有感舊之意云]

(『면앙집(俛仰集)』 권3)

## 2) 임억령(林億齡, 1496~1568)

공로 김윤제에게 주다[寄恭老金允悌]

一壑客身滯 한 골에 막혀 있는 나그네 신세러니  
孤村秋氣還 외로운 마을에 가을 기운이 돌아왔네  
胸中千萬卷 가슴 속에 천만 권을 품고 있지만  
物外兩三山 세상 밖의 별천지에 묻힌 몸이네  
威鳳有時鍛 위엄 있는 봉황새 때론 날개 상한다지만  
寧龍誰得閑 사나운 용을 뉘 능히 가둘 수 있으랴  
虛客眞我累 허튼 객이 진실로 나를 속박하여  
往往落人間 때때로 인간 세상에 전해지는구나

(『석천집(石川集)』 권5)

환벽당에서[環碧堂]

萬山圍處一川橫 만산이 두른 곳에 시내 한줄기 흐르는데  
 醉後憑軒鶴背明 취하여 난간에 기대니 학의 등이 하얗네  
 鍾鼎山林元有分 벼슬아치와 산림거사는 원래 분수 있나니  
 眠前擲酒未宜輕 눈앞의 술잔도 가벼이 여기지 말지어다  
 夕陽沙際小船橫 해질녘 모래 가에 작은 배가 비졌는데  
 布傘如蓮水底明 포산은 연과 같아서 물속까지 비취주네  
 衰老縱無兼濟力 노쇠한 늙은 이 몸 세상 구할 힘 없지만  
 斜風細雨往來輕 비긴 바람과 가는 비속에서 편히 지낸다네

(『석천집(石川集)』 권5)

환벽당 시에 차운하다 경신년 여름에[次環碧堂韻 庚申夏]

微雨洗林壑 가랑비 수풀 골짜기 씻어줌에  
 竹輿聊出遊 대가마 타고 잠시 밖으로 나가네  
 天開雲去盡 구름이 흩어짐에 하늘이 열리고  
 峽坼水橫流 골짜기 벌어진에 물이 비껴 흐르네  
 白髮千莖雪 흰 머리는 천 줄기의 눈 발 같고  
 蒼松五月秋 푸른 솔은 오월에도 가을 느낌이네  
 飄然蛻蠹穴 표연한 기분은 개미구멍에서 나와서  
 笙鶴戲瀛洲 피리 불고 학 타며 영주에서 놀아보려네

(『석천집(石川集)』 권3)

환벽당에서[環碧堂]

雨後溪肥沒石稜 비 내리니 시냇물 불어 돌 모서리를 파묻고  
 觀瀾盡日小窓憑 물결 구경하느라 온종일 작은 창에 기대었네  
 簷前果熟頭時佛 처마 앞의 과일 익어 때로 머리 부딪치고  
 階前魚潛手可翫 섬돌 앞 숨은 고기는 손으로도 잡겠네  
 山澤臞仙面有稜 산택에 사는 파리한 신선 얼굴 튀어 나왔고  
 松間架屋太虛憑 소나무 사이에 집 지으니 하늘을 기댔도다  
 從今林壑藏鱗甲 지금부터 숲속에다 비늘과 껍데기 감추리니  
 不受人間漁父罾 인간 세상 어부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려네  
 烟氣兼雲氣 연기는 구름 기운과 섞여지고  
 琴聲雜水聲 거문고 소리 물소리와 섞였네  
 夕陽乘醉返 석양녘에 술 취하여 돌아오니  
 沙路竹輿鳴 모랫길 대 가마 뺨거덕 뺨거덕

(『석천집(石川集)』 권5)

식영정 이십영[息影亭 二十詠](환벽당 관련 시 세 수)

낙시터의 두 소나무[釣臺雙松]

雨洗石無垢 비에 씻기어 돌에는 때가 없고  
霜侵松有鱗 서리 맞은 소나무엔 비늘 있어라  
此翁唯取適 이 늙은이 오직 뜻한 바 취할 뿐이니  
不是釣周人 곧은 낙시 드리우던 강태공 아니겠나

환벽당 아래의 영추[環碧靈湫]

澄湫平沙浪 맑은 늪 모래톱의 잔잔한 물결  
飛閣望如船 높은 누각 바라보니 배인 듯하네  
明月吹長笛 밝은 달 아래 긴 피리를 부니  
潛蛟不得眠 물에 잠긴 용 잠 이룰 수 없네

(『석천집(石川集)』 권5)

환벽당 아래에서 배를 띄우며[環碧泛舟]

野艇載古月 들 배에 옛 달빛 싣고서  
沿洄楊柳間 버드나무 사이를 거슬러 오르네  
鳴榔誤觸石 빈랑나무 울리다 잘못 돌에 부딪치니  
宿鷺起沙灘 사탄에 잠자던 해오라기 놀라 날으네

(『석천집(石川集)』 권5)

3) 김인후(金麟厚, 1510~1560)

경로·공로·언진 제형들에게 삼가 부치다[奉寄敬老恭老彦鎮諸兄]

環碧溪連瀟灑園 환벽당 앞 시냇물은 소쇄원에 닿았는데  
江籬香動間蘋蘩 물가 향초 향기 속에 사이사이 마름 뜨리  
無端病隔崇朝路 무단히 병이 들어 새벽길이 막혔기에  
臥看梅梢月一痕 매화 끝에 걸린 달의 한 흔적만 누워 보오

(『하서전집(河西全集)』 권6)

환벽당에서[環碧堂]1

당은 광주 동쪽에 있는데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당을 그 위에 지어 깊은 연못을 내려다본다. 당의 주인은 김윤제로 자는 공로요, 호는 사촌이다.[堂在光洲東 築石爲臺 作堂其上 俯臨深湫 堂主金公允悌 字恭老 號沙村]

在藻魚知樂 시내 다리 비치는 달 온 몸에 띠고  
盈田稻有秋 물 위를 거닐면서 읊조리누나  
帶得溪橋月 뱀 술은 산기슭을 의지해 있고  
行吟水上游 반석은 강 중류로 뻗어 들어라  
亂松依小麓 마름에 잠긴 고기 즐거움을 알고  
盤石入中流 밭에 가득 벼 곡식 풍년을 맞네  
奇花明醉眠 진기한 꽃 취한 눈에 환히 뜨이니  
征馬立芳洲 가는 말을 방주에 멈추었노라

(『하서전집(河西全集)』 권9)

#### 환벽당에서[環碧堂]2

帶得溪橋月 시내 다리 뜬 달빛을 환히 받고서  
行吟水上游 물가 따라 노닐면서 읊고 가나니  
亂松依小麓 이술 저술 작은 산록 의지했는데  
盤石入中流 너럭바위 물 속에 들어가 있네  
在藻魚知樂 마름 있어 물고기의 낙을 알겠고  
盈田稻有秋 논에는 벼가 익어 가득 찼구나  
奇花明醉眼 기묘한 꽃 취한 눈을 환히 밝히니  
征馬立芳洲 나그네 말 방주 곁에 세우고 보네

(『하서전집(河西全集)』 권8)

#### 환벽당에서[環碧堂]3

綠浪粼粼蘸碧天 푸른 물결 맑디 맑아 먼 하늘 잠겼는데  
沙邊立馬不知年 모래톱에 말 세운 적 모르페라 어느해뇨  
蓬茅自芘韓公舍 다붓 잔디 스스로 한공집을 덮었다면  
松菊猶存陶令田 술과 국화 오히려 도령밭에 남아 있네  
石瀨魚蝦供俯掇 돌 시내 고기 새우 곱어 잡게 마련되고  
林柯猿狖失攀緣 숲가지 원숭이들 올라 탈 걸 잃었구려  
何當促席軒窓畔 어느 때나 현창가에 자리를 맞대고서  
斗酒相將合自然 말술을 서로 들며 자연에 어울리리

(『하서전집(河西全集)』 권10)

#### 4) 양응정(梁應鼎, 1519~1581)

환벽당과 소쇄원의 승경을 둘러보고 고암자에게 보여주다  
[歷賞環壁瀟灑之勝 因示鼓巖子]

環壁堂前泛小舟 환벽당 앞에다 작은 배를 띄웠는데  
使君心跡共清悠 사군의 마음 역시 맑은 물과 같아라  
今朝又赴山翁約 오늘 아침 산옹과 약속 있어 달려오니  
石下菖蒲灑玉流 바위 아래 창포에서 옥류가 흘러나오네

(『송천집(松川集)』 권1)

### 5) 김성원(金成遠, 1525~1597)

벽간당에서 송옹의 시에 차운하다 벽간당은 삼사의 시내에 있다.[碧澗堂次松翁韻 碧澗堂 在三槎溪]

席上鳴灘是舊聲 자리에 올린 여울 옛 소리 그대론데  
醉魂偏向此中醒 취한 녀이 쏠려가자 이 속에서 술 깨네  
沙翁已逝松翁遠 사촌 노인 벌써 가고 송강마저 멀어진 채  
舊耳那堪獨自聽 옛날대로 귀 기울여 어이 나만 홀로 듣나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

### 6) 박광옥(朴光玉, 1526~1593)

계함 정철의 요구에 응해 지은 목사 김윤제의 만장[金牧使允悌輓章 應鄭季涵之求]

淸時攀桂客 청한 시절 급제하여 벼슬하였고  
白首弄雛人 흰 머리로 젊은이들 가르쳤었네  
歷典留遺愛 지방관을 역임할 제 은혜 끼쳤고  
歸休託老臣 은퇴해도 노신으로 자문했었지  
芝蘭盈九畹 지초 난초 구원에 가득하였고  
琴酒娛佳辰 금과 술로 좋은 때 즐기었다네  
忽罷遊仙夢 홀연히 신선세계 놀던 꿈 깨어  
飄然脫積塵 표연히 진세를 벗어나셨네

(『회재집(懷齋集)』)

### 7) 기대승(奇大升, 1527~1572)

환벽당에서 관부 송순의 시에 차운하다[次環碧堂 宋判府韻]

萬古仇池藏小天 만고의 구지 작은 하늘 간직하니  
白雲閑影自年年 흰 구름의 한가로운 그림자 해마다 같네  
危亭據石非無水 돌 위의 높은 정자 아래엔 물이 흐르고  
華屋依林更有山 숲 속의 좋은 집 뒤에는 산도 있어라  
不是遨頭甘落拓 오두 되어 쓸쓸함 달게 여긴 게 아니라  
應同谷口去糞緣 응당 곡구와 함께 인연 버린 거로세  
人生好醜君休說 인생의 곱고 추함 그대는 말하지 마소  
且把深盃發浩然 우선 깊은 술잔 잡고 호연지기 말하노라

(『고봉선생문집(高峯先生文集)』 권1)

### 8)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김언욱·채광문·양천심·양득우·김백일·김려 등 제군이 환벽당에서 깃들다가 돌아  
가려 할 때 짧은 시 한 편으로 소회를 쓰다[梁得遇金百鎰金礪諸君 來栖環碧堂其還  
以短律一篇 寫懷]

我是逃空者 남모르게 숨어 살려고 하는데  
君爲悅臭人 자네들은 왜 나를 찾아 왔는지  
半生攻篆刻 나이는 벌써 반평생이 지났어도  
於道蔑涓塵 아무 쓸모없는 헛이름뿐이거늘  
旋見垂歸橐 갑자기 모두가 흩어져 가니  
無端濕別巾 하염없는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荒詞出肝肺 짤막한 이 시 보잘 것 없지만  
應記老夫眞 늙은 나의 심정 짐작하리라

(『제봉집(霽峯集)』 권2)

식영정 20영[息影亭 二十詠](환벽당 관련 시 두 수)

낙시터의 두 소나무[釣暮雙松]

鶴髮暎蒼鬢 한 모퉁이의 낙시터 깨끗도 한데  
風竿抽素鱗 물고기 가끔 낙시에 걸려드네  
二松誰對樹 마주 선 두 소나무 뉘 심었을까  
烟雨揔宜人 가랑비 내릴 때 쉴 만하겠네

환벽당 아래의 영추[環碧靈湫]

白日喧雷雨 맑게 개인 날에 우뢰가 요란하니  
顛風箠針船 낚시 배 바람에 요동을 치네  
村翁傳怪事 어떤 노인 놀라며 전하는 말이  
石竇老蛟民 바위틈에 이무기 잠자고 있다 하네

(『제봉집(霽峯集)』 권3)

유서석록[遊瑞石錄]<sup>2)</sup>(1574년 4월 23일)

…이날 저녁에 비로소 식영정에 당도했으니, 곧 강숙의 별장이었다. 선생이 난간에 의지하여 한가로이 감상했으며 밤에는 서하당에 들어가 촛불을 켜고 질탕히 놀다가 흥이 다하매 자리를 파했으니, 이 또한 일시의 거룩한 일이었다. 식영정과 서하당의 두 편액은 모두 박공(이름은 영)의 글씨로서 정자는 팔분이요, 당은 전자로 되어있었다. 무릇 식영정과 서하당의 아름다운 풍치는 이미 석천의 기문에 소상히 실려 20명과 8명 가운데에 섞여 나와 있으니, 이제 어찌 새삼스레 말을 첨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 뒤에는 돌로 몇 계단을 쌓아 모란, 작약, 월계화, 일동, 철쭉 등을 심었는데, 모두 특수한 품종으로서 변화하지 않고 청수하여 자연의미를 갖추어 있었다. 서하당의 서북방에는 10여 평 되는 연못이 있었는데 4~5줄기의 백련이 심어져 있었고, 대 홈통으로 샘물을 이끌어 뜰아래를 거쳐 연못으로 끌어왔으며 연못의 남쪽에는 벽도 한그루가 있었고 그 서쪽에는 금앵수 몇 그루가 있어 담장 위로 뻗어 있었다. 식영정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날아갈 듯한 정자가 있었고, 그 앞에는 큰 반석이 시냇물을 가로막았으며 아래에는 맑은 웅덩이가 있었다. 이는 곧 김 사문 윤제의 고택으로서 환벽당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신 영천(이름은 잠)이 지었다고 한다. …[…日夕始到息影亭卽剛叔別墅先生倚檻寓賞頗極從容夜入栖霞堂秉燭窮歎興闌而罷斯亦一時勝事也息影栖霞二額皆朴公詠所題而亭則八分而堂則篆也凡亭若堂之勝已悉於石川之記而雜出於二十詠八詠之中奚容贅焉堂後石砌數級植以牡丹芍藥月季花日東躑躅皆殊品不繁而麗有自然之勝堂之乾隅方塘半畝種白蓮四五莖以竹筧走泉伏流階下而入于塘塘之南有碧桃一株其西有金櫻樹數本蔓延牆上自息影南○有亭翼然前有盤石捍流下有澄湫卽金斯文允悌故居申靈川潛扁曰環碧云…]



道瑞石錄 十五

畫榜其南累石高之巽以小亭形如張傘  
 常蒼者碧梧甚古枝半朽亭下懸小池刻  
 木引澗水注之池西有銀竹百挺至左可  
 賞竹西有蓮池竟以石引小池由竹下過  
 蓮池之北又有水碓一區訝見無非瀟湘  
 物事而河西四十詠盡之矣主人深君子  
 得為先生置酒日夕始到息影亭即附叔  
 別墅先生倚檻寓賞頗極從容夜入拙靈  
 堂秉燭窮歡興闌而罷斯亦一時勝事也  
 息影拙靈二額皆朴公詩所題而亭則八  
 分而堂則篆也凡亭若堂之勝已悉於石  
 川之記而雜出於二十詠八詠之中莫容  
 贅焉堂後石砌數級植以牡丹芍藥月季  
 花日東躑躅皆殊品不繁而聚有自然之  
 勝堂之乾隅方塘半畝種白蓮四五莖以  
 竹筥走泉伏流階下而入于塘塘之南有  
 碧桃一株其西有金櫻樹數本蔓延牆上  
 自息影南崖有亭翼然前有盤石揮流下  
 有澄湫即金斯文允掃故居中靈川潛窟  
 曰環碧云○二十四日賦晴朝昌平縣令  
 李公考謙來謁先生因觴于樓霞堂一元  
 自滿酒後至浮以巨觥酒半先生起詣人  
 隨之判官後余與剛叔遞挽上息影亭更

9) 정철(鄭澈, 1536~1593)

환벽당 시에 차운하다[次環碧堂韻]

一道飛泉兩岸間 한 줄기 나는 샘물 양 언덕에 떨어지고  
 採菱歌起蓼花灣 여뀌꽃 핀 물굽이엔 연밥 따는 노래하네  
 山翁醉倒溪邊石 산 노인이 술에 취해 냇가 바위 누웠는데  
 不管沙鷗自往還 갈매기는 상관 앓고 제멋대로 오락가락

(『송강집(松江集)』 권2)

벽간당에 쓰다[題碧澗堂]

碧澗冷冷瀉玉聲 푸른 시내 졸졸졸 쏟아내는 구슬소리  
 五更秋枕酒初醒 가을 새벽 베갯머리 술 막 깨어 듣자니  
 沙翁去後增嗚咽 사촌옹이 가신 뒤에 더욱더 목이 매여  
 風樹興懷不忍聽 풍수지탄 감회 일어 차마 듣지 못하겠네

(『송강집(松江集)』 속집 권1)

식영정 잡영[息影亭 雜詠]

환벽용추[環碧龍湫]

危亭俯凝湛 솟은 정자 깊은 못 굽어보기에  
 一上似登船 한 번 올라보니 마치 배에 오른 듯  
 未必有神物 모름지기 신물 있는 것 아니지만  
 肅然無夜眠 숙연하여 밤에도 잠 못 이룬다네

(『송강집(松江集)』 속집 권1)

성산별곡[星山別曲](환벽당 부분 발췌)

…오동(梧桐) 서릿 달이 사경(四更)의 도다 오니 천암만학(千巖萬壑)이 낮인들 그리홀가. 호주(湖洲) 수정궁(水晶宮)을 넘어 오고 은하(銀河)를 뛰어 건너 광한전(廣寒殿)의 올낮는도 짝 마잔 늙은 술은 조대(釣臺)에 세워 두고 그 아래 비를 씌워 갈 대로 더더 두니 홍료화(紅蓼花) 백빈주(白蘋洲)어나사 진닛관대 환벽당(環碧堂) 용(龍)의 소(沼)히 빗머리에 다하세라…

(현대어 풀이)

… 오동잎 사이로 가을 달이 사경이 되니 천암만학이 낮인들 그보다 더 아름다우랴. 호주의 수정궁을 누가 옮겨 왔는가. 은하수를 뛰어 건너 광한전에 오른 듯.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에 세워 놓고, 그 아래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붉은 여귀 꽃, 흰 마름꽃, 핀 물가를 어느새 지났기에 환벽당 용소에 빗머리가 닿았구나…

(『송강집(松江集)』 별집 권2)



10) 백광훈(白光勳, 1537~1582)

환벽당에서[環碧堂]

數曲煙溪清若空 서너 구비 안개 낀 골 너무 맑아 빈 듯한데  
 小堂閑夢蒲襟風 작은 정자 한가한 꿈 부들자리 바람 부네  
 覺來開戶無人見 잠 깨어나 문을 여니 아무도 보지 않고  
 斜日離離映水中 저녁 햇살 뉘엿뉘엿 물속에 어리누나

(『옥봉집(玉峯集)』 上)

금릉에서 회포를 적어 서하당 주인 김성원에게 주다[金陵記懷 贈栖霞主人 卽金成遠]  
(환벽당 부분 발췌)

君家光山城正東 그대 집(김성원)은 광산의 성 동쪽에 자리하여  
瑞石峯帶蒼溪流 서석봉이 둘러 있고 창계 물길 흐른다네  
蒼溪之上詢且樂 창계의 물가에서 위문하고 즐겼나니  
白波靑嶂眞仙區 흰 물결과 푸른 봉 참신선의 구역일세  
瓊樓綺席不敢當 멋진 다락 비단 자리 감당할 수 없겠지만  
玉琴瑤瑟陳壺觴 아름다운 거문고에 술자리 베풀 적엔  
千松影處月如晝 천 그루 솔 그림자 달빛 속에 그림 같고  
一水聲時風入酒 한 줄 냇물 소리 날 제 술잔에 부는 바람  
環碧堂前並吟騎 환벽당 그 앞에서 말 나란히 읊조리며  
瀟灑園中聯舞袖 소쇄원 그 속에서 소매 이어 춤추었네  
此時歡賞心未極 이런 때의 즐거움 마음속에 끝이 없어  
勝事重結江南約 강남에서 다시 놀자 거듭 약속 맺었다네  
江南詞宗吾石川 강남땅의 사종이신 우리 석천 선생님은  
文彩風流今謫仙 그 문채와 풍류가 오늘날의 이백으로  
玉堂金馬謝時人 금마 옥당 벼슬살이 당대인께 사양하고  
歸來獨與漁蓑親 돌아와서 오로지 어옹과만 친했구나

(『옥봉집(玉峯集)』 하)

## 11) 송남수(宋柟壽, 1537~1626)

환벽당에서[環碧堂]

琪樹千重一逕通 좋은 나무 천 겹에 한 길이 나 있으니  
壑雲松靄映房瀧 골 구름 솔빛이 용소에 비추이네  
川光隱見疎林外 일월성 빛 성근 숲에 어른어른 비추고  
山勢縱橫落照中 산세는 낙조 속에 종횡으로 뻗혀있네  
入戶寒蟾金婀娜 문에 비친 밝은 달은 황금처럼 아리뭇고  
滿林晴雪玉玲瓏 숲을 덮은 하얀 눈은 구슬처럼 영롱하네  
朱門白屋元相隔 부자와 가난은 원래 서로 현격하고  
從古閑忙本不同 예로부터 한망함은 본래 같지 않다네

(『송담집(松潭集)』 권2)

12)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이양구가 강변을 순시하러 가면서 환벽당에서 부윤과 이별하는 자리에서[養久往巡江邊 與府尹別於環碧堂]

絕域重相見 먼 외지에서 다시 서로 만나  
樽前意更傾 술동이 앞에 놓고 마음 기울이노니  
離亭是客路 이정에 모인 우리는 나그네 길  
王事共嚴程 나랏일로 함께 바쁜 일정에 쫓긴다  
粉堞山樓迥 흰 성가퀴라 산의 누각은 아득하고  
春塘水檻清 봄 못이라 물가의 난간은 맑구나  
男兒要事業 남아란 모름지기 사업을 이뤄야지  
臨別莫傷情 이별 앞에서 마음 아파하지 말자

(『월사선생집(月沙先生集)』 권7)

환벽당에서 벌어진 작은 술자리에서 입으로 불러서 읊다[環碧堂 小酌口呼]

隱隱蓬萊島 봉래의 섬은 은은하게 보이고  
冷冷水伯宮 수백의 궁전은 맑은 모습이어라  
池寒春尙雪 못이 차워라 봄눈 아직 남았고  
簷豁靜還風 처마 트인 곳 고요한데 외려 바람  
晚席繁絃咽 저물녘 자리에는 악기 우는 소리  
他鄉勝友同 타향에서 좋은 벗들과 모였어라  
歸途荷正發 귀로에는 연꽃이 한창 피었으리니  
留興曲欄東 굽은 난간 동쪽에 머물러 흥을 즐기리.

(『월사선생집(月沙先生集)』 권7)

13) 권필(權輶, 1569~1612)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술을 마시며 빨리 짓다[君不見 對酒走筆]

君不見思庵朴政丞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사암 박정승은  
家居冷落如山僧 집안 생활 영락하여 산승과도 같아라  
君不見松江鄭相國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송강 정상국은  
百年行己能淸直 평생의 자기 처신이 참으로 청직하여라  
豈但寒餓困一生 자신만 빈한하여 일생을 고생할 뿐이라

復令子孫無地耕	자손들 농사지을 땅조차 없게 했도다
環碧堂虛成草萊	환벽당은 텅 비어 잡초만 무성하고
拜鵲窩破空蒼苔	배견와는 무너져 푸른 이끼만 남았네
洛陽車馬何喧喧	낙양의 거마는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紆青拖紫皆賢才	관복을 걸친 이들 모두 어진 인재로세
爭將毀鄭作階梯	다투어 정을 헐뜯어 계제를 삼나니
誰肯譽朴生禍胎	누라서 박을 칭찬해 재앙을 낳으랴
朱門峨峨臨九衢	주문이 우뚝이 변화한 거리에 서 있는데
一夫顧眄千夫趨	한 사내가 돌아보면 천 사내가 굽실거리네
斲來寶玉山岳崩	보옥을 다 캐 와서 산악이 무너지겠고
灑出明珠滄海枯	명주를 다 건져 내어 창해가 마르겠구나
雖傳仍雲億萬歲	비록 후손들이 억만년 길이 이어지도록
金帛爛用無時無	금은보화 아무리 써도 없어질 때 없겠군
君不見體素李翰林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체소 이한림은
半世黃卷爲書淫	반평생 서책에 파묻혀서 서음이 되었어라
君不見五山車秘書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오산 차비서는
欲將詞賦凌相如	사부를 가지고 상여를 능가하려 했어라
文章益富家益貧	문장이 넉넉할수록 집안은 더욱 가난하니
仕路狹窄難容身	벼슬길이 비좁아 몸을 들여놓을 수 없었지
生者飄零趨路傍	산 사람은 영락하여 길가에 다니고
死者埋沒隨埃塵	죽은 사람은 묻혀 먼지 따라 사라졌네
男兒行世別有路	남아의 세상살이에는 따로 길이 있으니
莫把陳編徒自苦	해묵은 서책 가지고 사서 고생하지 말라
翰苑清深玉堂高	한림은 맑고 깊으며 옥당은 높으니
其中學士多英豪	그중에 학사들은 뛰어난 영재 많으리
花牋彩筆恣揮洒	화전에다 채필을 휘둘러 글씨를 쓰니
觀者焉能辨眞假	보는 이들이 어찌 진위를 가릴 수 있으랴
人生稱意得如此	인생이 뜻대로 되면 이와 같을 수 있느니
班揚燕許爲何者	반양연허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던가
爲酌一杯勸少年	술 한 잔 따라 소년에게 권하노니
榮悴貴賤寧在天	영취와 귀천은 정녕 하늘에 달렸다네
故知通塞皆自由	그러므로 통색에 모두 자유로움을 아노니
以彼易此知誰賢	저것으로 이것을 바꾸면 누가 어질겠는가
不如是非都兩忘	차라리 인간사 시비를 모두 잊고서
日日醉倒春風前	날마다 취해 춘풍 앞에 거꾸러지는 편이 나으리

(『석주집(石洲集)』 권2)

14) 목대흠(睦大欽, 1575~1638)

환벽당 시에 차운하다[次環碧堂韻]

灣州形勝地 물 좋은 명승지에  
樓觀聳亭亭 누대들 우뚝히 솟아있네  
俯瞰江潮白 맑은 강물 굽어보고  
平臨嶽靑 푸른 산 마주 대하네  
興圖曾點綴 흥 일면 증점 잇기를 꾀하고  
王命慣行經 왕은 관행으로 지내기를 명하네  
別構何年月 어느 해에 별도로 엮었느냐  
流泉此瀄滄 흐른 물이 이곳에 머물렀네  
晴虹跨碧落 맑은 무지개 하늘을 가로지르고  
彩鷁駕蒼冥 고운 익조는 창공을 날아가네  
縹緲疑淸漢 아득히 맑은 은한인가 의심하고  
泓澄謝濁涇 맑은 물은 흐린 경수를 사절하네  
雲煙工作態 구름은 이상한 모양을 짓고  
鱗介巧潛形 조개는 공교롭게 몸 감추었네  
鶴馭超西海 학을 타고 서해를 뛰어넘고  
鵬風捲北溟 봉새는 바람맞아 북명을 거뒀네  
群仙齊佩玦 여러 신선 모두 패옥을 찼고  
衆樂隱雷霆 여러 풍악은 천둥소리에 묻혀버리네  
繞砌粧花艷 고운 꽃은 섬들 둘러 단당하고  
巡簷蠟炬熒 밀랍 촛불 처마를 밝게 둘러있네  
韶華供筆硯 봄 경치 붓을 휘두르게 하고  
神物護窓櫺 영묘한 물건들 집을 보호하네  
軍事看開甲 군사들이 갑옷 헤침 보는 것 같고  
衙時間點丁 관아에선 때로 장정 점검함 같네  
氓疲蠲重賦 백성들이 피폐하니 무거운 세금 없애고  
政簡用輕刑 정치가 간소하니 가벼운 형벌 쓴다네  
喜與張槎會 기쁘게 장사와 함께 만나고  
欣從鄭驛停 즐겁게 정역을 따라 머무네  
憑欄對碧草 난간에 기대어 푸른 풀 대하고

牽纜賞丹萍 닳줄 이끌고 붉은 마름 완상하네  
 洒落新賢宰 새로 온 어진 원님 깨끗하고  
 風流舊使星 옛 사신은 풍류스럽네  
 遊魚慢舞戲 노는 고기 부질없이 헤엄치고  
 昂馬淨琴聽 머리 든 말 고요히 거문고 들네  
 轉眄窮歡謔 눈동자 굴리며 해학을 다하고  
 聯裾迭醉醒 옷깃 연하여 질탕히 술 마시네  
 柳堤遊騎住 버들 독에는 노는 말 멈춰있고  
 花嶼怪魂馨 꽃 섬에는 괴이한 기운 향기롭네  
 豈異尋眞境 어찌 진경을 찾음과 다르리오  
 還堪制暮齡 도리어 만년 제어함을 감내하네  
 短材三尺朽 짧은 재목 삼척은 썩어가나  
 長劍十年硎 긴 칼은 십년을 갈았다네  
 道遠憐騏驎 길이 먼니 준마가 그리웁고  
 情深戀鶴鴿 정 깊으니 할미새 생각나네  
 閑愁悲落蘂 한가한 수심은 떨어진 꽃 슬피하고  
 素計歎凋萸 본 계획은 마른 명협 탄식하네  
 蝶夢迷孤枕 나비 꿈은 외론 베개 혼미케 하고  
 葵忱仰大庭 해바라기 마음은 부모를 우러르네  
 才微慙倚玉 재주 작으니 옥 의지함 부끄럽고  
 力瑣負撞筵 힘 약하니 들보 받침 저버렸네  
 邊塞多烽燧 변방엔 봉황불 많고  
 鄉山長茯苓 고향엔 복령이 자란다네  
 歸心苦未果 돌아갈 맘 과단치 못함 괴롭고  
 羈思忍胡寧 나그네 생각 어찌 편히 함 차마 하라  
 莊鳥吟烏几 장석은 검은 안석을 읊고  
 王喬想鶴翎 왕교는 학 깃을 생각하였네  
 浮名幾潦倒 뜬 이름 얼마나 큰비에 거꾸러졌나  
 亂髮已飄零 어지러운 머리칼은 벌써 나부껴 떨어졌네  
 滿地江湖在 가는 곳마다 강호 있으니  
 吾還養性靈 내 돌아와 천성을 기르리라

15) 정홍명(鄭弘溟, 1592~1650)

환벽당에서 옛날을 회상하다[環碧堂感舊]

亭臺夷迥壓前溪 누대가 저 멀리 앞내를 압도하니  
草樹縈紆匝近堤 풀 나무 얽히어 제방에 두루하네  
石縫矮松低拂水 돌은 작은 솔 돌아 나직히 물 떨치고  
牆陰苦竹細分蹊 담장은 참대에 그늘져 가늘게 지름길 나뉘었네  
隣僧去後收殘卷 이웃 중 떠난 뒤에 남은 책 거두고  
社鼓休時聽夕鷄 사직 북 멈출 때 저녁 닭소리 듣네  
興廢百年餘勝境 흥폐한 백 년 뒤에 명승이 남았으니  
老來淸賞轉生悽 늙어서 감상함에 도리어 처연하여라

(『기암집(畸庵集)』 권5)

환벽당에서 마을 벗들과 중앙절 모임을 갖다[環碧堂 與洞友作重陽會]

匝岸楓林照水妍 물가 두른 단풍 숲 물에 비쳐 고우니  
湖山詩景九秋天 가을 호산은 모두가 시경이어라  
佳辰莫漫欺吾老 좋은 때는 부질없이 날 속여 늙게 마라  
頭白猶能棹酒船 머리 희어도 되려 술 실은 배 저으리라

(『기암집(畸庵集)』 권8)

16) 이명한(李明漢, 1595~1645)

환벽당에서 아버지가 이찬의 그림을 보여줄 때 내놓은 운을 잇다[環碧堂 次家尊示李贊畫時發韻]

野闊天疑盡 들 넓어 하늘 끝 없는가 의심스럽고  
山空日易傾 산이 텅 비니 해가 쉽게 기울네  
相逢俱絕塞 서로 만나 함께 끊어지고 막히니  
此別卽長程 이때의 이별이 곧 긴 길이었네  
祖席笙歌咽 할아버지 자리에 피리노래 오열하고  
官齋枕簟淸 관청 집엔 침구가 깨끗하네  
明朝秋葉散 내일 아침 가을 낙엽 흩어지면  
何耐獨歸情 홀로 돌아가는 심정 어찌 견딜까

(『백주집(白洲集)』 권5)



17) 이시성(李時省, 1598~1668)

환벽당에서[環碧堂]

春和踏青節 봄 날씨 온화하면 푸른 풀 걷는 계절  
獨遊環碧堂 나 홀로 환벽당에서 노닌다네  
水流人亦去 물 흐르고 사람 또한 떠나가니  
松竹老蒼蒼 오래된 송죽만 창창하여라

(『기봉집(騏峰集)』 권1)

18) 이은상(李殷相, 1617~1678)

환벽당에서 읊조리다[環碧堂口占]

境似桃源洞 지경이 무릉도원 같으니  
川疑白石灘 냇은 백석탄인가 의심하네  
林花紅百日 숲 꽃은 백일을 붉게 피고  
籬竹綠千竿 울대는 천 줄기가 푸르네  
草色平如織 초색은 평평하여 짜놓은 듯  
山光秀可餐 산 빛은 빼어나 거들만하네  
登臨撫古跡 등림하여 옛 자취 어루만지니  
松下獨盤桓 소나무 아래서 홀로 어정거리네

(『동리집(東里集)』 권1)

19) 오이익(吳以翼, 1618~1666)

환벽당에서 정랑에게 준 시에 차운하다[環碧堂 次贈貞娘]

萬事人間不勝悲 인간의 모든 일 슬픔 남아 있으니  
杜娘無復舊容姿 두랑도 다시는 옛날 모습 없다네  
相逢環碧春風夜 봄바람 부는 밤 환벽당에서 서로 만나  
共說前遊涕自垂 옛 놀음 함께 이야기하니 눈물 절로 흐르네

(『석문집(石門集)』 권2)

환벽당에서 죽선에게 주다[環碧堂 贈竹仙]

謫下人間今幾春 인간 세상 귀양온 지 몇 해나 되었느냐  
舊遊偏憶玉河濱 그 옛날 옥하가에서 놀던 일 생각나네  
誰知琴酒春樓會 누가 알까, 금주로 춘루에서 만났는데  
獨作三清夢裏身 이젠 홀로 삼청에 꿈속 사람 된 것을

잠꾸러기 신선을 기롱하다[譏仙好睡]

(『석문집(石門集)』 권2)

20) 김창흡(金昌翕, 1653~1722)

환벽당에서[環碧堂]

環碧堂中客 환벽당에 있는 손님  
安知非主人 어찌 주인 아님을 알랴  
歸依因地勝 돌아와 의지함은 명승이기 때문이요  
嘯詠亦天真 휘파람 불고 읊으니 또한 천진하다네  
松竹澄潭會 송죽은 맑은 못에 모아있고  
雲嵐瑞石親 구름은 서석산을 둘러있네  
雨來添洒落 비가 와서 깨끗함 더하니  
吾已岸烏巾 내 벌써 검은 두건 쓰고 거니네

(『삼연집(三淵集)』 권14)

21) 이하곤(李夏坤, 1667~1724)

환벽당에서[環碧堂]

勝地如高士 명승지는 고상한 선비와 같아  
同德必有隣 덕이 만드시 이웃에 있는 듯  
瀟灑與環碧 소쇄원과 환벽당은  
駢列一溪濱 나란히 한 시내 기슭에 어우러져 있네  
造物力廣大 조물주의 역량 광대하여  
賦形各殊倫 각각 색다른 형상 부여했네  
瀟灑品格妙 소쇄원의 품격 기묘하고  
環碧擅風神 환벽당의 풍광 빼어나다네

蒼石上盤陀 푸른 돌 위는 울퉁불퉁 반듯하지 않으며  
 淸潭下漣淪 맑은 못 가운데 물결 잔잔히 이네  
 揮手弄文漪 손을 휘저어 물결 일으키니  
 游魚正可親 노니는 고기떼와도 정말 친해지네  
 回視千竿竹 돌아보니 우쪽 자란 대나무  
 正立如偉人 곧게 솟아있어 험칠한 사람 같네  
 嘯咏恣吾意 휘파람 불어 내 마음 실어보는데  
 何必問主賓 어찌 반드시 주객을 물으리오  
 伊昔河西翁 그 옛날 하서옹은  
 高情出風塵 고고한 정회 속세를 벗어나  
 杖屨常來往 지팡이에 삼신 신고 항상 오가며  
 愛此景物新 이곳 경물의 신선함을 좋아하셨네  
 我來千載後 내가 오랜 세월 뒤에 와서  
 俛仰跡已陳 우리굽히려니 그 자취 이미 퇴색하였네  
 生既不同時 태어난 시기 같지 않으니  
 欲見亦何因 뵙고자 한들 어떻게 인연되겠나  
 仰視瑞石山 서석산 우러러보니  
 如得見公眞 마치 공의 모습 보는 듯하네  
 作詩題岩間 시 지어 바위 사이에 쓰니  
 欲以俟千春 천년을 기다리고자 함이네

(『두타초(頭陀草)』 권10)

## 22) 김신겸(金信謙, 1693~1738)

환벽당에서[環碧堂]

堂名高左海 환벽당 이름 좌해에서 우뚝하니  
 來往幾賢人 왕래한 어진이 얼마나 될런지  
 園籜冲霄氣 동산의 죽순 하늘 부딪칠 기운 있고  
 潭魚得意眞 연못의 고기는 득의함이 참되네  
 風流松老遠 풍류는 노송과 멀어지고  
 翰墨芭翁親 한묵은 늙은 파초와 친하다네  
 偶與山公醉 우연히 산사람들과 같이 취하여  
 吟歆白巾 백포건 비스듬히 쓰고 읊는다네

(『회소집(檜巢集)』 권3)

### 23) 조자이(趙子以, ?~?)

過松江先生舊居有感志懷仍贈鄭達夫 송강(松江)선생이 거처하신 옛날의 구거(舊居)를 지나면서 느낀 바의 생각을 시(詩)로 읊어 정달부(亭達夫)에게 줌

丞相故墟何處尋 승상(丞相)께서 사신 옛터 어느 곳에 찾을 손가  
鳴陽縣郭瑞湖潯 명양(鳴陽) 고을 서호(瑞湖) 위에 그의 유적 남았도다.  
淸名直節賢孫繼 맑은 이름 곧은 절개 어진 자손 이어가고  
餘韻遺風過客飲 남긴 여운 맑은 유풍 지난 손이 흠모하네.  
環碧亭空新易主 비어있는 환벽정자 새 주인이 바뀌었고  
棲霞堂在古猶今 그 옛날의 서하당(棲霞堂)이 아직까지 건재하네.  
通家小子悲吟地 통가(通家)하는 이 소자(小子)가 찾아와서 읊조리니  
老木寒波無限心 늙은 나무 찬 물결에 이 마음이 설레이네.  
崇禎後乙未仲冬 趙子以 謹稿

송정(崇禎) 후 을미(乙未)년 11월에 조자이(趙子以) 삼가 이 시를 지음

#### 【식생 현황】

- 환벽당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등산의 현존 식생은 소나무군락, 리기다소나무림, 편백림,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낙엽활엽수 혼효림, 억새군락과 야까시나무-매미꽃군락, 희귀식물집단인 끈끈이주걱군락 등 10개 식물군락으로 구분되고 있음.
- 따라서 환벽당이 위치한 언덕 주변으로도 이들 수목군이 대체로 군락으로 감싸고 있으며, 원래 환벽당 주변으로는 대나무가 빼곡히 식재되어 있었다고 함.
- 현재 환벽당 내에 식재된 수목은 크게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록교목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전부이며 그 외 대부분 낙엽교목이다. 전체적으로 수량(樹量)은 상록교목이 12주, 낙엽교목이 77주로 교목이 총 89주로 풍부하나, 수종(樹種)은 17종으로 수량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일가문비나무가 3주, 소나무가 9주로 상록교목은 12주이며, 낙엽교목은 느티나무 5주, 매화나무 15주, 모과나무 3주, 배롱나무 9주, 버드나무 2주, 벽오동 12주, 산수유 1주, 왕벚나무 7주, 은행나무 15주, 이팝나무 1주, 자귀나무 1주, 청단풍 2주, 칠엽수 1주, 팽나무 3주로 총 77주가 있음

#### 마. 검토의견 (\*\*\*\*\*)

- 환벽당을 중심으로 호남시단(湖南詩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불후의 문사들을 배출하고, 당대 명류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가문학의 산실과 요람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별서원림임
- 면양정 송순은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 동네에 3군데의 명승즉, 一洞之三勝이라 하여 예부터 유서 깊은 명승으로서 시인묵객들이 수많은 시·문을 지어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
-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창계천)의 조대(釣臺), 용소(龍沼), 소나무림과 죽림이 환벽당의 당호처럼 푸르름이 고리를 두르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고정원으로서 가치가 우수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문화를 보여주는 곳임

#### 바. 지정조사 의견('13.07.18)

##### <\*\*\* 문화재위원>

1. 문화재 종별 : 명 승
2. 문화재 명칭 : 환벽당 일원
3. 문화재 지정 가치 :
  - 1)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1501~1572)가 조선 명종 조(1540년대) 초에 자연을 벗 삼아 노년을 보내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별서임. 환벽당은 무등산 북쪽의 증암천 수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양 소쇄원 및 식영정과 함께 일동삼승(一洞三勝)으로 꼽히는 별서원림임.
  - 2) 환벽당은 담양 식영정과 함께 전라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분리된 후, 전라남도 담양군에 속한 식영정은 명승 제57호로 지정되고 광주광역시에 속한 환벽당은 광주광역시기념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임.
  - 3)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 변의 조대(釣臺), 용소, 그리고 수림지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고전문학과 관련된 인문학적 의미가 매우 큰 곳으로서 고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우수한 대상으로 판단됨.
4.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환벽당 배후의 수림지 및 조대, 용소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정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5. 보호·관리 방안 검토  
지정 후 정밀조사와 정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보존 및 활용계획' 작성이 필요함.
6. 종합의견  
환벽당 일원은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별서원림으로 판단됨.

### <\*\*\* 문화재위원>

1. 문화재 종별: 명승

2. 문화재 명칭 : 환벽당 일원

3.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환벽당이 위치한 곳은 무등산 북능의 능선으로 북봉을 거쳐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지맥 중의 하나이며, 사촌 김윤제(1501-1572)가 태어난 충효마을 북쪽 200m지점에 있음. 또한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창계천(자미탄)을 사이에 두고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경관적으로 선경을 이루고 있음.

2)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이 있고,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소쇄공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있으며, 이 마을들 주변으로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취가정 등이 소재해 있어 이 일대가 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이었음을 알수있음.

환벽당 반경 1km내에는 최근 천연기념물 제539호로 지정된‘충효동왕버들군’을 비롯하여 충효동 도요지(사적 제141호), 시지정문화재 충효동 정려비각, 충장사, 김덕령 생가 등이 있고, 가사문학관이 소재해 있는 등 생태환경이 양호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함.

3) 환벽당과 관련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의 승경에 탄복하여 시문을 남겼으나, 특히 조선전중기 이지역문인중 시가문화권의 좌장역할을 하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 역할을 한 송순(1493-1582)은 소쇄원과 식영정, 그리고 환벽당을 일컬어 한 동네에 3군데 명승이 있다고 함으로써 이곳을 아름다운 명승지로 노래하였음.

(瀟灑園息影亭環碧堂以一洞三勝稱之)

4. 연혁유래 및 특징

1) 환벽당은 평소 자연경관에 관심을 가진 사촌 김윤제(1501-1572)가 조선 명종조 1540년대 초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 보내고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건물의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이고 가운데 2칸을 방으로 하여 앞쪽과 오른쪽 을 마루로 깎 변형된 형식임.

2) 이곳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제액(題額)이 걸려 있고,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송강(松江) 정철(鄭澈),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조자이(趙子以) 등의 시가 현판으로 걸려있음.

3) 환벽당의 당호(堂號)는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이 지었는데, 지형이 이처럼 산과 녹수로 둘러있고. 이 당의 전후좌우에 창송(蒼松) 청림(靑林)이 가득하기때문에 당호를 ‘환벽’이라 하여 이 당의 특징을 나타낸 것임.

즉, ‘환벽’이란 이름글자 그대로 이 집의 주위가 모두 푸른빛으로 둘러

싸여 청록일색(靑綠一色)의 승경지를 이루고 있다는 뜻임.

사촌 김윤제가 건립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의 제자였던 송강 정철의 4세손 정수환(鄭守環)이 김윤제 후손으로부터 사들여 현재 연일정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음.

## 5.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환벽당이 위치해 있는 이 마을의 뒷산은 험난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으며, 또 높지 않고 낮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형국을 지니고 있음. 특히 무등산 정상 이 정면으로 바라보이고, 성산(星山)의 좌우에 자리해 있어 아주 뛰어난 승경을 이루고 있음.
- 2) 환벽당의 초기모습은 소세양(1486-1562)이 지은 “환벽당“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 ; 1653~1722)의 『南遊日記』를 통해 그 당시의 원림의 식물상과 조경수종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성원((1525-1597)의 “서하당유고“ 에 ”성산계류탁열도“등의 그림이 남아있어 문헌사적으로도 가치를 더해주고 있음.
- 3)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빈번히 일어난 사회로 인하여 선비들이 벼슬살이에 환멸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와 경치가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자연과 벗하며, 문학, 역사, 철학을 논하고 즐기던 조선시대의 고급문화를 형성하였는데, 무등산 일대와 담양 창평을 중심으로 수많은 누정들이 지어졌으며, 환벽당은 담양 소쇄원,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등 그 중 계산풍류와 시가문화를 발전시킨 정자문화의 산실임.
  - 사촌 김윤제는 송강 정철과는 외손녀 사위로 인척관계이며, 김윤제(金允悌)가 교유한 사람들은 송순(宋純), 임억령(林億齡), 김인후(金麟厚), 소세양(蘇世讓), 양산보(梁山甫) 부자, 양응정(梁應鼎), 기대승, 김성원, 정철(鄭澈), 고경명(高敬命), 백광훈(白光勳)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호남사람으로 기묘사화(己卯土禍)와 을사사화(乙巳土禍)를 거치면서 시대의식을 함께 했으며, 왕성한 시단을 형성하였다고 할수 있음.
- 4) 환벽당 관련 시로는 임억령의 환벽당을 소재로 한 7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24수가 전하고, 송순의 환벽당 시 2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4수가 있으며, 김인후의 환벽당 시 3수와 김윤제에게 주는 시 1수가 있음.
  - 소세양도 김윤제에게 주는 시 2수와 환벽당 시 5수를 남겼으며, 기대승도 <차환벽당송판부운(次環璧堂宋判府韻)> 1수, 정철도 <차환벽당운> 1수, 백광훈도 <환벽당> 1수, 고경명과 권필도 환벽당 관련시를 각 1수, 이밖에도 정홍명 2수, 목장흠 2수, 이은상 1수, 이하곤, 1수, 이명한





- 2) 계류가로 송림,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에 대해서는 수관정리와 병충해방제 등의 수목관리를 해주고 자미탄이란 이름에 걸맞게 배롱나무와 대나무등을 보식할 필요가 있음.
- 3) 경관적으로 저해를 하는 창계천 주변의 사유지는 매입하는 방안 강구 필요.
- 4) 환벽당 별서와 본제(本第)가 있는 충효마을과의 소로길 개설(환벽당 서측협문~숲길~성벽~충효마을)등을 통한 연계방안 검토 필요.

#### 8. 종합의견

- 1) 환벽당 일원은 역사문화적으로나 자연경관적으로 볼 때 명승으로 지정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명승지정을 적극 추천함.
- 2) 환벽당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무등산 일대의 호남가단을 형성한 소쇄원과 식영정, 송강정, 면양정, 독락당, 취가정 등을 연계, 둘레길을 설치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연을 담은 별천지로서 정자문화권의 진가를 발휘할수 있도록 진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 <\*\*\* 문화재위원회>

1. 문화재 종별 : 명 승
2. 문화재 명칭 : 환벽당 일원
3. 문화재 지정 여부 검토
4. 입지환경 및 역사문화 환경
  - 1)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1501~1572)가 조선 명종 때 후학 양성과 노년 생활을 위해 지은 별서원림임.
  - 2) 환벽당은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하는 자미탄이라 불리는 창계천에 가까이 있으며, 그 앞은 남쪽 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푸른 산들이 고리처럼 둘러 있는(環壁)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음.
  - 3) 환벽당은 정자, 연못을 비롯하여, 증암천 변의 조대(釣臺)와 용소 등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음.
  - 4) 환벽당 주변에는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소쇄원과 식영정, 독수정, 취가정 등이 소재해 있음.
  - 5) 환벽당 바로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539호 ‘충효동 왕버들군’이 소재해 있음.
  - 6) 환벽당 일원은 주변의 식영정, 소쇄원 등과 함께 시가문화권의 한 축을 이루는 인문학적 의미가 깊은 곳임.
5. 연혁유래 및 특징

- 1) 환벽당은 사촌 김윤제가 조선 명종조 1540년대 초 노년에 자연을 벗삼아 보내고, 후학양성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음.
- 2) 환벽당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쓴 제액(題額)이 걸려 있고,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송강(松江) 정철(鄭澈),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조자이(趙子以) 등의 시가 현판으로 걸려 있음.
- 3) 환벽당의 당호(堂號)는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이 지었고, 지형이 산과 녹수로 둘러있고, 또 집 주변으로 소나무와 숲, 창송(蒼松) 청림(靑林)이 가득하여 당호를 ‘환벽’이라 하였음.

#### 6.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환벽당은 나지막한 야산 아래 위치하고 있고, 무등산이 앞을 이루고 성산이 좌우를 받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옛 멋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연못(개울)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 2) 환벽당은 담양 소쇄원 식영정, 송강정, 면앙정 등과 한 권역으로 계산풍류와 시가문화를 발전시킨 정자문화의 산실임.

#### 7. 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타당성 :

- 1) 환벽당과 뒷 산, 그리고 주변의 수림지 및 조대, 용소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지정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음.

####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우선 창계천의 조대와 용소부분 물이 녹조현상 등으로 명승의 경관에 맞지 않으므로 녹조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2) 환벽당 우측의 개인 주택은 매입하여 전반적인 경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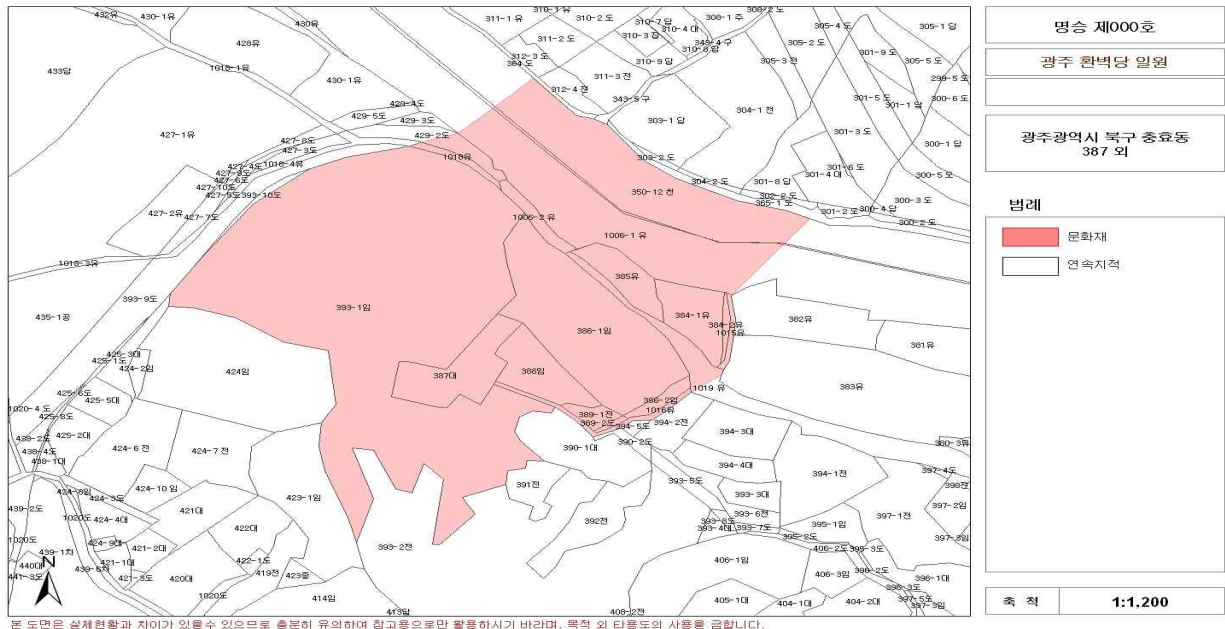
#### 9. 종합의견

환벽당 일원은 자연경관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명승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음.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8필지 / 26,8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1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4-1	유	645	645	한국농어촌공사
2		384-2	유	69	69	한국농어촌공사
3		385	유	536	536	한국농어촌공사
4		386-1	임	3,124	3,124	*** 외 8인
5		386-2	임	155	155	*** 외 8인
6		387	대	975	975	*** 외 10인
7		388	임	764	764	*** 외 8인
8		389-1	전	146	146	*** 외 10인
9		389-2	도	26	26	*** 외 10인
10		393-1	임	13,416	13,416	*** 외 8인
11		429-2	도	417	201	광주광역시
12		1006-1	유	43,095	2,965	국(건설부)
13		1006-2	유	200	200	국(건설부)
14		1015	유	89	89	국(건설부)
15		1016	유	179	179	국(건설부)
16		1018	유	107	107	국(농림부)
17		1019	유	1,507	411	국(농림부)
18	전남 담양군 지곡리	350-12	유	17,026	2,824	국(건설부)
계	18필지				26,832	

아. 문화재 지정구역도 : 18필지 / 26,832㎡



자.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3-08-27

**2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4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자 : ****숙(경기도 광주시) ○ 허가사항 : 사육(보전과 종 번식) ○ 허가기간 : 2013. 8. 12. ~ 2018. 8. 11. ○ 개체수 : 원앙 2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자 : ***(경상북도 영천시) ○ 허가사항 : 사육(보전과 종 번식) ○ 허가기간 : 2013. 8. 12. ~ 2018. 8. 11. ○ 개체수 : 원앙 2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자 : ***(경기도 고양시) ○ 허가사항 : 사육(보전과 종 번식) ○ 허가기간 : 2013. 8. 12. ~ 2018. 8. 11. ○ 개체수 : 원앙 2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허가사항 : 사육(출산 개체, 보호관리후 방사) ○ 허가기간 : 2013. 8. 14. ~ 2018. 8. 13. ○ 개체수 : 산양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 ○ 허가사항 : 사육(구조.치료 개체, 자연방사 불가능) ○ 허가기간 : 2013. 8. 22. ~ 2018. 8. 21. ○ 개체수 : 산양 1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양양군수</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오색령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따른 데크설치</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30번지</li> <li>- 사업내용 : 한계령휴게소 내 목재데크 설치 36.2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8.12. ~ 2013.12.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크시설을 최대한 평지 방향으로 들어서 설치 (경사지쪽 시설높이를 최소화)</li> </ul> </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시설본부 강원시설단</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도로 포장</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번지</li> <li>- 사업내용 : **도로 콘크리트 포장(L 1.3km, W 3.0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8.12. ~ 2013.9.30.</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주지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기본선원 건립공사</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62번지</li> <li>- 사업내용 : 기본선원 건립(건축면적 386.1㎡, 연면적 86.1㎡, 정면 14칸, 측면 5칸, 팔작지붕)</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8.12. ~ 2014.10.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행</li> <li>-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li> </ul> </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설악산 신흥사 공중화장실 신축</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li> <li>- 사업내용 : 화장실 건립(정면 5칸, 측면 1칸, 건축면적 54.94㎡)</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8.12. ~ 2014.3.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속초시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설악산 산신제단 보호담장 기와교체</li> <li>-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12번지</li> <li>- 사업내용 : 설악산 산신제단 보호담장 기와교체(49.5m)</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8.12. ~ 2013.10.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 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해남군수</li> <li>○ 신청내용 : 하천 탐방로 교량 철거 및 신축</li> <li>○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191번지(지정구역 내)</li> <li>○ 허가내용 : 기존 탐방로 인도교 철거 후 TPS 교량 형태로 신축</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 얼음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내용 : 얼음골 주변 돌너덜에 계절 역전현상 연구를 위한 라돈측정장치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산95-1 외 (지정구역 내)</li> <li>○ 허가내용 : 결빙지역을 제외한 탐방로 외각 돌너덜에 냉혈점 및 온혈점 3개소 측정장치 설치</li> </ul>	<허가>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공주시장</li> <li>○ 허가사항 : 공주 고마나루 송림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지형복원 2,338㎡</li> <li>- 송림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식재 수고8.0m*근원직경30cm 48주</li> <li>· 소나무식재 수고8.0m*근원직경35cm 31주</li> <li>· 소나무식재 수고8.0m*근원직경40cm 27주</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 12. 31.</li> <li>○ 조건부허가 : 솔숲 내부가 하나가 되고, 가능한 하천방향으로 표면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지형을 조성</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63호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부안군수</li> <li>○ 허가사항 : 채석강 주변 닭이봉길 정비</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콘크리트포장 1,790㎡</li> <li>- 측구수로관 65M, 돌배수로 272M</li> <li>- 자연석쌓기 79㎡</li> <li>- 기타편의시설 : 전자식차단기 1EA, 운동시설 5EA, 벤치 10EA</li> <li>- 시설물 주변 잡목제거 및 가치치기, 아카시아 나무 제거</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1.19.</li> </ul>	<허가>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삼척시장</li> <li>○ 허가사항 : 삼척죽서루 3차 정밀발굴 추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 외 9필지</li> <li>- 발굴면적 : 1,554㎡(기 발굴허가 3,874㎡)</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12.31</li> <li>○ 허가조건 : 발굴에 관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와 발굴허가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거쳐 시행, 발굴조사 후 수목 등 원상복구</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28호 삼척 죽서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삼척시장</li> <li>○ 허가사항 : 삼척시립박물관 수장고 1층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근콘크리트구조, 증축면적 : 261.96㎡</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2.31</li> </ul>	<허가>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거창신씨 오수종중 ***</li> <li>○ 허가사항 : 시비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 가로 1,201mm×세로 600mm×높이 1,412mm</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0.31</li> <li>○ 조건부 허가 : 위치를 변경하여 시비를 건립</li> </ul>	<허가>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한국환경공단</li> <li>○ 허가사항 : 2013년도 국가지하수측정망 설치(낙동·금강권역) 및 지역지하수측정망 시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심도 : 깊이10m, 깊이30m, 깊이80m 관설치</li> <li>· 화강석 규격 : 3.6m × 0.6m</li> <li>· 상부보호시설 노출높이 : 20~25cm 이내</li> </ul> </li> <li>- 측정망 시료채취 장비 설치</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10.31</li> </ul>	<허가>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봉화군수</li> <li>○ 허가사항 :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교체 및 피뢰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망데크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데크 및 난간 철거 35㎡</li> <li>· 콘크리트 도장 278㎡</li> <li>· 안전난간 설치(천연목재) L=121.4m H=1.3m</li> <li>· 데크 및 계단설치 A=60㎡</li> </ul> </li> <li>- 피뢰침 설치: 이온방사형광역피뢰침 설치 2개소</li> </ul> </li> <li>○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3.12.31</li> </ul>	<허가>
	명승 제97호 서울 백악산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제****부대장</li> <li>○ 허가사항 : 서울 백악산 일원의 **시설물 철거에 따른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거 복구 면적 : 703.6㎡(기존 ** 등 6개동)</li> <li>- 철거 굴삭기 진입로 개설 175m, 운반용 모노레일 설치 700m</li> <li>- 복구지 조경 : 소나무 등 6종 220주, 관목류 4,000 주, 잔디식재 등</li> </ul> </li> <li>○ 허가기간 : 2013.8.7.~2013.11.30.</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서귀포시장</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재난예방(하천감시용)을 위한 CCTV 설치</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li> <li>- 사업내용 : CCTV 설치 1기</li> </ul> </li> <li>&lt;변경허가 사항&gt;</li> <li>○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2013.7.1~2013.8.31 → (변경) 2013.7.1~2013.10.31.</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 암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동화사</li> <li>○ 신청내용 : 대견사 증창</li> <li>○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대웅전 등 건물 4동</li> <li>· 대웅전, 산신각, 선당, 종무소 및 요사채</li> <li>· 건축면적 : 181.62㎡</li> <li>- 변경 : 가람배치 변경(면적 증감 없음)</li> <li>- 변경사유 : 주변 경관과 조화, 대지 효율성 확보 등</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삼척시장</li> <li>○ 신청내용 : 간이판매장 보수</li> <li>○ 사업위치 :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 일원</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간이판매장 보수 L=18.9m, B=1.95m</li> <li>·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 8. 31</li> </ul> </li> <li>- 변경(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간이판매장 보수 L=18.9m, B=1.95m</li> <li>· 사업기간 : 허가일 ~ 2013. 10. 20</li> </ul> </li> </ul> </li> </ul>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 부여군수</li> <li>○ 사업명 : 부여 구드래 일원 백마강변 산책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위치 : 부여 구드래 일원 내</li> <li>- 사업내용 :</li> </ul> </li> <li>&lt;기허가사항&gt;</li> <li>○ 백마강변 산책로 : 면적 5,678.4㎡, 길이 1,892.8m</li> <li>○ 허가기간 : 2013.5.24~2013.12.31.</li> <li>&lt;변경허가사항&gt;</li> <li>○ 백마강변 산책로 : 면적: 5,834.3㎡, 길이 1,919m</li> <li>○ 허가기간 : 변동없음.</li> </ul>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결사항 : 원안접수